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신도

2014 SUMMER VOL.44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4 SUMMER

VOL.44

평신도

만 남 |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특 집 |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
요한 23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시성식
이병호 주교 인터뷰

이야기 |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

나 눔 | 가톨릭약사회 탐방

배 움 | 허연 기자의 명작 속 하느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Editor´s Letter

에디터 레터

인터넷 서핑 중에 우연히 만난 다음 글이 아주 복음적입니다.

"자네네 집에 밥 잡수시러 오시는 분들이 자네의 하느님이여. 그런 줄 알고 진짜 하느님이 오신 것처럼 요리를 해서 대접해야 혀.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은 일절 할 필요가 없어. 하느님처럼 섬기면 하느님들이 알아서 다 먹여 준다 이 말이여."

-장인순 선생님 말씀 중에서-

오는 8월 중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을 주례하고 아시아 청년대회를 참관하시기 위해 방한하십니다. 서울대교구 대전교구 청주교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천주교회 전체가 그분의 방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멀리서 찾아오시는 교종을 기쁜 낯으로 맞아들이고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아주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시는 거죠. 행사 준비 작업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종의 정신을 배우고 퍼뜨리는 운동을 펼친다면 이 땅의 복음화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교종께선 가톨릭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동력은 무리한 선교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가지는 매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교는 외침이 아니라 삶 자체란 이야기지요. 그분 스스로도 소박하고 파격적인 행보로 세계인들을 매료시킵니다.

교종 방한을 준비하는 시기에 맞춰 계간지 '평신도'는 여름 호 주제를 '영접'으로 정했습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는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름 호에서는 부부,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대부와 대자 간에 서로를 어떻게 영접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는 쌍방향 에세이를 마련했습니다. 서로를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대구대교구 김성도 · 김종숙 부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가톨릭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에 의기투합한 최홍운 대부(사목정보 고문)와 김지영 대자(EBS 이사)의 신앙 이야기, 유학 간 독일에서 만난 사위와 결혼해 그곳에 정착한 딸과 나누는 백홍렬 · 수진 부녀 간의 애잔한 그리움, 40여 년 전 스승과 제자로 만나 학업을 넘어 신앙에서까지 멘토와 멘티가 된 박정숙 · 조추자 선생님의 사연이 쏠쏠한 재미와 감동과 줍니다.

반갑게 맞아들이는 사람을 뜻하는 '맞조이'라는 정겨운 북녘 사투리가 있습니다. 삭막하고 팍팍한 인생 여정에서 모든 이가 서로가 서로에게 '맞조이' 노릇을 하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편집장 김선동 루카 올림

CONTENTS

VOL.44 | 2014 SUMMER

평신도

인 사 02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기다리며 | 권길중

만 남 04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명백훈

특 집 08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 | 이지연
14 요한 23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시성식 | 강성화
17 이병호 주교 인터뷰 | 배봉한

휴 식 21 공소의 여름 풍경 | 김한얼

이야기 22 주님께서 주신 선물 | 김종숙
산다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닐진데 | 김성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자 김지영에게 | 최홍운
아름다운 숲속 새 길을 갈 때, 대부님이 | 김지영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딸에게 | 백홍렬
주님께서… | 백수진
열여섯 소녀의 모습으로 나의 기억 속에 머문 소녀 '조추자' | 박정숙
나의 성모님, 나의 은사님 | 조추자
나는 그를 찾아 세상을 다니리라 | 이택영
35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 (2) | 구인회
38 그레고리아의 '하느님, 질문 있어요!' (2) | 송향숙

나 눔 41 평신도가 뛴다 | 가톨릭노동장년회
43 회원단체 탐방 〈한국가톨릭약사회〉 | 김세진
45 김길수 교수의 복자들의 영성 (2)

배 움 49 김문태 교수의 인문학 강좌 (2)
52 가타리나의 영화 이야기 (2) | 조혜정
55 권용준 교수의 성화 이야기 (6)
58 허연 기자의 명작 속 하느님 (2)
61 평신도 양서 | 신동수
64 영어 미사 길라잡이 (2) | 김태식

소 식 66 바티칸에선 | 유영훈
70 평신도 뉴스

발 행 인 권길중 바오로
담당사제 손희송 베네딕토
발 행 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위원 강성화 미카엘라, 고계연 베드로,
김서영 마리아, 권용준 안토니오,
김문태 힐라리오, 김세진 글라라,
명백훈 프란치스코, 배봉한 세례자요한,
신동수 세라피나, 오완수 바오로,
이지연 마리아(가나다 순)
편 집 장 김선동 루카
제 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인쇄 가톨릭출판사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한국 방문을 기다리며

권길중 바오로
한국 · 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 협의회 회장

"우리도 각각 자신이 새롭게 '복음의 제복'으로 갈아입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을 때 하느님께서 교황님 방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남김없이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서로 갈라서는 슬픈 역사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벗이 있어 멀리서 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有朋而 自遠方來, 不亦悅乎-論語)

1984년 5월 103위 시성식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정확한 우리말 발음으로 하신 도착성명의 일성이십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셔서 순교지인 이 땅에 침구를 하신 뒤 신자들뿐 아니라, 온 국민들의 눈과 귀와 가슴이 교황님의 뒤를 쫓았던 기억이 30년이 지난 오늘에도 꼭 어제 일인 것만 같습니다.

그 5년 뒤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우리 땅에서 있었던 '세계성체대회'를 위해서 다시 찾아 주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우리나라의 교세가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했는지를 우리 모두 잘 기억합니다. 그때 개신교 지도자 한 분이 "어떻게 해서 가톨릭교회는 땅에 말뚝만 박아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까?" 하고 저에게 질문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평화의 사도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시복식을 통하여
선교사 없이 시작된 한국교회를 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시아 청년대회를 통하여
아시아의 청년들을 한국 땅에 불러주시고
새로운 복음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과 시복식을 위한 기도'를 아침, 저녁기도와 그리고 로사리오를 마친 뒤에, 또 미사 시작 전 등 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날짜를 꼽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께서 다른 나라나 혹은 먼 지방에 출장을 가셨을 때 돌아오실 날짜를 손꼽으면서 무언가 아버지께 칭찬들을 일을 만드는 그런 심정으로 교황님께서 칭찬하실 일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님을 모시고 교황님의 첫 권고인 '복음의 기쁨'에 관한 강좌가 이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에도 늘 그렇게 해왔듯이 가난한 분들, 장애 때문에 혼자서 살기 어려운 분들, 우리 사회가 낯설기만 해서 아직 잘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와 다문화 가정, 외국 근로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과 함께 있어 주고,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우리 평협이 준비하고 있는 '한국가톨릭화해중재원'의 설립과 사업추진도 교황님께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하는 한 가지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역대 교황님들께서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면 언제나 우리 한반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더구나 북쪽에 사는 우리 형제들은 신앙의 자유를 잃은 채 산 지가 내년이면 70년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잃고 정치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며,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여 국민들 모두가 굶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접근하여 도움의 손길을 펴 주는 것은 평화의 사도이신 교황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시아에 신앙의 기쁨을 전하는 소명도 우리들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나라를 개방하고 사회를 개혁하여 초강국으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인구를 보유한 중국,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경제대국이 된 일본, 신흥 경제 강소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대만 등지에 교황님들이 아직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세 번씩이나 교황님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아시아 복음화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성조들을 모신 영광스런 우리 후손들이 먼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기쁨에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이웃과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교회 쇄신을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먼저 쇄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도 각각 자신이 새롭게 '복음의 제복'으로 갈아입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을 때 하느님께서 교황님 방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남김없이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서로 갈라서는 슬픈 역사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떠나간 사랑이 남겨준 선물

문호 토마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온 국민이 함께 눈물을 흘린 슬프고도 아름다운 5월 중순, 의정부 교구의 문호 토마스 평협 회장님을 명동 한국평협 회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구릿빛 얼굴의 건장한 체구의 회장님은 겉은 멀쩡해도 속은 다 삭았다는 말씀과 함께 나이가 들수록 하느님이 두렵게 느껴지고, 아울러 죄를 짓는 게 무서워진다고 겸손의 말씀을 우선 던지셨다. 세상을 떠난 아내를 추억하실 때에는 어린 아이처럼 행복하고 아련한 눈빛이다. 떠나간 사랑이 남겨준 선물을 생각해 보는 복된 시간이었다.

대담 · 정리: 명백훈 편집위원, 사진: 오완수 편집위원

의정부 교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평협이 구성됐죠? 신생 교구로서 재정과 인적 자원은 물론 성당도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의정부 교구의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신생 교구 평협 회장으로서의 봉사직에 대한 포부도 밝혀 주십시오. 또 재임기간에 어떤 철학으로 평협을 이끌어 가실지, 숙원 또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2004년 6월 24일 서울 대교구에서 분리된 우리 교구는 관할구역이 경기북부지역, 즉 의정부시(주교좌성당 위치)를 중심으로 양주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연천군, 고양시, 파주시를 포함하는 고구마 모양의 향토적 정감이 가득한 신생 교구입니다. 초대교구장 이한택 요셉 주교님의 뒤를 이어 현재는 제2대 교구장이신 이기헌 베드로 주교님(착좌 2010년 5월)을 모시고 있습니다. 초대교구장 재임 6년 동안은 '찾아가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를 사목 모토로 '이주사목', '민족화해'를 주력 사목 분야로 삼았으며, 지금은 '소공동체 활성화'를 교구의 비전으로 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족화해', '이주사목' 그리고 공동협력사목인 '직장경찰사목', '사회복지법인', '수도회와의 연대' 등 하느님 나라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신생교구의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당 71개, 공소 5개, 8개 지구, 사제수 201명, 신자 수 27만여 명이며 주보성인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10년 사이에 세 배 이상 성장을 이루었으니 가히 기적이라 하겠습니다. 신생교구라 아직은 반쪽짜리 평단협에 불과하지만, 금년 안에 사목회장그룹과 남성총구역장그룹, 여성총구역장그룹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평단협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 목표이며, 교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가톨릭 신앙과의 만남, 세례부터 신심단체 활동과 봉사 활동, 조상님들과 가족들의 신앙 이야기를 포함해 개인적 신앙 얘기를 폭넓게 들려 주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고, 다음해에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엄한 외국인 신부님한테 종아리 맞아가며 세례와 견진 공부를 했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까지는 주일미사 거르면 밥을 얻어먹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5남1녀 중 장남인 나를 사제로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독실한 신앙을 엄청 박해하시던 할머니와 부친을 가톨릭 신자로 만드신 어머니는 아흔이 다된 연세에도 지금도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진학 공부를 핑계로 냉담을 시작했고, 결혼 후 아내인 안젤라가 남편의 회두를 위해 엄청 노력했죠. 본당신부님을 설득해서 ME, 꾸르실료 등 신심교육을 받게 했지만, 주일미사를 한 달에 한번 정도 참례하는 무늬만 가톨릭 신자인 탕아였습니다. 술 마시는 게 밥 먹는 것보다 많았고, 노름으로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담배를 하루 2갑 이상 피우던 지독한 골초였지요. 30년 이상을 언론사에 근무하며 의미 없는 생활을 계속하다가 1998년 5월 느닷없이 안젤라가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서야 비로소 주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말기 선고를 받고도 8년을 더 살다가 하느님의 품으로 기쁘게 안긴 안젤라의 믿음과 사랑이 지금도 저를 굳게 추스려 줍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평화로이 누워 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회개한 이후에는 주일 미사를 빠져본 적 없고, 본당 남성구역장, 사목회 부회장, 사목회장, 의정부교구 성령쇄신봉사회장,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감사, 의정부교구 초대 평단협 회장까지 맡아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다하게 만드신 주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의정부 교구에는 황사영, 남종삼의 묘소를 포함해서 뮈텔 주교님의 일기에 따른 사목 방문지의 순례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지도 소개해 주십시오.

"양주 관아 치명성지와 마재 성지가 있습니다. 양주는 1866년 병인박해 때 홍성원 아우구스티노, 김윤오 요한, 권말다, 김마리아, 박서방 다섯 분이 치명순교를 하신 곳으로, 의정부교구 순

교자공경위원회가 2008년 '경기북부 지역과 한국 천주교 심포지엄'을 통해 정확한 치명지를 찾아냈으며, 앞으로 치명성지로 가꾸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 조안면에 소재한 마재 성지는 정약전, 약종(아우구스티노), 약용(요한) 형제의 고향으로 정약종의 자녀인 성 정하상 바오로와 성 정정혜 엘리사벳 남매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정약종과 그의 맏아들 정철상이 시복되는 8월이면 정약종의 가정은 세계 교회사에서도 유래가 드물게 일가족 모두가 성인과 복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기에 마재는 '성가정 성지'로서 이중의 기쁨과 의미를 간직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갈등과 대립 현상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신앙인의 양심과 교회의 정의구현 의무라는 명제를 어떤 방법으로 조화시켜야 할까요?

"'2013년 의정부교구 신자들의 신앙의식과 신앙생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1만4,593명, 27개 본당) 중 77%가 종교보다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현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의 보편적 의식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신자들마저도 교회의 가르침보다는 내 원칙대로 산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세속적 이유로 갈라지는 것은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은 너무나도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개개인의 감정과 느낌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사랑과 정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일깨우는 영성적 접근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해지는 물질사회에 반비례해 신앙의 대물림 문제,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이들의 교회 외면 현상이 심각합니다. 의정부교구는 사정이 어떤가요?

"의정부 교구는 젊은 신자들이 많아 앞으로 기대가 되는 교구입니다. 현재 가톨릭교회에서 20세에서 35세에 이르는 젊은이는 무려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가톨릭 신자의 20%에 달하는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그들을 따뜻한 시선과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령, 슬리퍼를 신거나, 반바지 차림 등의 복장으로 교회에 나오더라도 꾸짖기보다는 포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을 비롯하여, 교회의 가르침(성서 공부 등)에 우선을 두기보다 그들의 복장, 언어, 태도 등을 먼저 이해하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리나 예절, 그리고 열정은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지요. 젊은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이번 아시아 · 한국 청년대회는 젊은이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리라 생각됩니다."

의정부 교구는 판문점을 비롯하여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구입니다. 다른 교구에 비해 북한의 동향과 통일에 아주 민감하리라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비해 평협과 평신도 개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다른 교구에는 없는 '민족화해센터'를 운영하며,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에 있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 및 민족 화해 센터'는 교구 시설을 넘어 한국교회가 북한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사목표어 내지 항상 염두에 두시는 성경구절, 좋아하시는 성가, 여가취미생활, 건강비법, 가족관계, 즐기시는 음식 등에 대해 코멘트해 주십시오.

"'서로 용서하여라.'(에페 4,32)와 성가 '평화를 주옵소서.'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레바논 출신 명상가인 칼릴 지브란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함인데, 그것이 만일 건강이었다면 의사로 오셨을 것이고, 그것이 음식이었다면 요리사로, 지식이었다면 학자로 오셨을 것이나 인간은 모두 죄인이어서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며 화해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우리 사회는 맨날 사상과 이념, 그리고 도덕성 문제로 서로 티격태격하며 서로의 흠을 찾아내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잠시 눈을 감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와 회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3녀1남 모두 출가시켰으며, 야구경기를 즐겨 시청하고 한 주에 2~3차례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강을 지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에 대처하는 한국 교회의 자세

Day 70여 일. '세상의 끝에서 온'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국 교회를 방문한다. 한국 교회에는 지난해 3월 즉위 이후 소박하면서도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온 교황이 이번 방한 기간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다.

정리: 이지연 편집위원

1 마재성지 '교황 방한 기념 특별사진전'
2 방한준비위원회 영성신심분과 좌담회

전 세계를 매료시킨 프란치스코 임팩트

양 냄새 나는 목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섬김의 리더십'으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 비신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그 시작은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부터였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며 성 베드로 광장에 나타나 머리를 숙인 교황의 소박함은 많은 이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그의 행보는 전부 파격과 놀라움 그 자체였다. 특권을 포기하고,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어 걸핏하면 노숙자들을 불러들였다. 얼굴이 혹으로 뒤덮인 남성에게 입을 맞추고, 소년원에서 세족례를 하는가 하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람페두사 섬의 난민 수용소를 선택했다.

교황의 소박한 파격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교황국내원이 올해 1월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황 선출 직후부터 2013년 연말까지 660만 명이 교황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간 일반알현, 단체 알현, 주일과 축일의 각종 전례, 삼종기도를 통해 교황청에서 교황을 만난 이들의 수만 집계한 것이다. 그러나 이 통계 수치는 발행된 입장권이나 군중의 규모를 근거로 대략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교황을 보기 위해 교황청을 찾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통계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나 성(聖)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이들을 만났음을 보여준다. 베네딕토 16세는 2005년 4월 교황으로 선출돼 그 해 교황청과 여름 별장인 카스텔 간돌포에서 400만여 명을 만났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때는 교황 선출 이듬해인 1979년까지 1년간 약 160만 명이 주간 일반알현을 요청했다.

그야말로 '프란치스코 효과'다.

프란치스코 효과(Francis Effect)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이탈리아 사회학자 마시모 인트로비네다. 그레고리안대학 교수인 그는 교황 선출 직후 바티칸 관광객이 봇물처럼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 현상이 교황에게서 온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토리노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는 그의 판단을 뒷받침한다.

그의 조사에서 사제들은 50.8%, 평신도는 44.8%가 이 현상에 동의했다. 특히 수도자들은 79.%가 뚜렷하게 이러한 현상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인트로비네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최소한 수십만 명이 교회로 돌아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트로비네 교수는 교황이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를 단지 언어 구사나 몸짓 등 외적인 요인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메시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풍요로운 교도권'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교황의 인기는 바티칸에만 머물지 않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위대한 지도자 50인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1위로 선정되는가 하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3년 '올해의 인물'로 교황을 선정하고 그의 인물 사진을 표지에 실었다. 심지어 그의 얼굴 사진은 유명 대중음악 잡지 '롤링스톤' 표지까지 장식했다.

영국에서도 프란치스코 효과가 톡톡히 드러났다. 지난해 영국 '선데이타임스' 는 영국과 웨일즈 지역의 성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수십 년 동안의 침체 끝에 유럽 가톨릭교회의 신앙이 활력을 얻을 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프란치스코 효과는 뚜렷하다. 교황의 첫 권고문 「복음의 기쁨」 판매량은 4월 말 현재 3만5000부. 3,000~4,000부에 머물렀던 이전의 교황 문헌 판매량과 비교해 볼 때 10배 가까이 많다. 그만큼 「복음의 기쁨」 그리고 교황에 대한 관심이 교회 안팎에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Step by Step

교황청과 한국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는 지난 3월 10일 오후 8시(로마 현지시간 정오) 교황 방한을 공식 발표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교황의 방한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9년 한국을 방문한 지 25년 만에 이뤄진다.

교황 방한이 공식 발표되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와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교회 안팎에서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 강우일 주교는 교황 방한 관련 메시지를 통해 "이번 교황님의 방한은 아시아의 여러 교회 중 분단된 한국의 교회를 제일 먼저 찾으심으로써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며 아시아의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염수정 추기경은 "교황 성하의 방문이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아시아 전체에 주님의 평화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어나 비추어라'(이사 60,1)를 주제로 8월 14~18일 한국을 방문한다. 중심 일정은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Asian Youth Day). 아시아 청년대회 역사상 교황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황은 15일과 17일 아시아 청년들을 만나 함께 문화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도 교황이 직접 주례한다.

또한 16일 서울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을 거행한다. 시복식은 선교사 없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건설한 평신도 신앙 선조들의 열정을 인정받은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한국 대표적인 복지시설인 청주교구 '꽃동네'도 같은 날 방문한다. 평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가장 강조해 왔던 교황이 장애아동들과 만나는 일정은 관심을 모은다. 아울러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며, 한국 평신도들뿐 아니라 한국 주교단과 아시아 주교단, 수도자, 국내 타 종교지도자들과도 각각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교황 방한 소식 발표만으로도 한국천주교회는 축제 분위기다. 양 냄새 나는 목자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 방한 발표 직후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교황 방문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황청 및 정부와 협의해 진행하는 실무 운영진이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강우일 주교(주교회의 의장), 집행위원장은 조규만 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 부위원장은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장) · 안명옥 주교(마산교구장,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 유흥식 주교(대전교구장 ·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 장봉훈 주교(청주교구장)이다.

방한 준비위는 출범 이후 교황 방한 주제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로고를 확정해 발표했고, 최근에는 소책자 자료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또한 주교회의 2014년 정기총회를 통해 승인된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과 시복식을 위한 기도'를 확정하는 한편, 124위 관련 성지와 순교지 등을 순례하며 바치는 기도가 방한 준비위 영성신심분과가 권고하는 실천운동의 하나로 진행된다. 아울러 전국 각 교구장은 하느님의 종 124위의 신앙적 모범을 우리의 삶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권고하며 전대사를 반포했다.

3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 첫 회의
4 교황 방한 기자회견
5 교황 방한 기자회견

방한 준비위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교황님을 맞이하기 위한 첫 준비는 우선 한국교회 전 신자들이 참여하는 기도운동"이라며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데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음의 기쁨」을 공부합시다

오는 8월 교황 방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교회의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jgelii Gaudium)을 주제로 한 굵직한 심포지엄과 다양한 강연을 통해 교회 내적 쇄신과 사회 복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준비위원회는 6월부터 전국 차원의 심포지엄을 비롯해 각 지역 순회강연 등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와 사회의 복음화 과제를 식별할 계획이다. 우선 6월 23~26일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사무총장 마리오 토소 주교의 특별강연회를 광주, 대구, 서울에서 각각 마련할 계획이다. 강연회는 교황이 권고한 사항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가 맞닥뜨린 도전과 과제를 풀어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5월 30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교황방한 특별 심포지엄'을 열었다. 준비위 영성신심분과와 새천년복음화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된 이 심포지엄에서는 조광 교수(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 천주교 초대 교회와 순교 영성'을, 심상태 몬시뇰(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소장)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한국교회의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은 6월 7일 '가톨릭 ·

개신교 합동 심포지엄-복음의 기쁨'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저명 사목자와 신학자들이 모여 한국사회의 복음화를 논의한다. 특히 이 심포지엄은 뜻있는 개신교 목사들의 제안으로 기획돼 관심을 모은다.

감리교신학대학 총장 박종천 목사는 "「복음의 기쁨」은 복음을 이 시대의 언어로 소통하기 위한 교황의 진정성이 담긴 위대한 문서"라며 "가톨릭 외 다른 종파 교부들도 참석한 2012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 문서를 정리한 만큼 가톨릭뿐 아니라 교파를 초월해 함께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주교회의는 지난 춘계 정기총회를 통해 전국 차원에서는 물론 교구별로 「복음의 기쁨」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학술의 장을 펼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 차원의 실천 운동 방향을 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협의 내용에 따라 각 교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강연회, 특강을 마련해 교황 권고의 메시지를 알리고 있다.

교황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자세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의정부교구 마재성지(주임 최민호 신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교황 방한 무렵까지 4개월간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현지 갤러리 쿰(CUM)에서 '교황 방한 기념 특별사진전'을 열고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국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출 직후 낸 메시지와 강론 등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내비쳤다. 특히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19명의 새 추기경 서임 미사 중에서는 이러한 관심을 드러냈다. 12번째로 호명된 염 추기경과 깊은 포옹을 나눈 교황은 "나는 한국을 매우 사랑합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황의 방한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아시아 복음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행보를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방한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 교황이 직접 주례하는 시복식 역시 각별하다. 한국교회가 200주년 사목회의를 연 지 30주년이자, 103위 순교성인 시성 3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한국교회 초기 박해인 신유박해 순교자들의 시복식은 큰 관심을 모은다. 특히 신앙선조들의 삶을 본받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새롭게 적응하며 세상에 기여할 교회의 역할을 심층 모색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교황의 방한으로 교회의 쇄신과 평신도의 능동적인 활동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복음화를 위한 쇄신의 촉구와 실천을 통해 전 세계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한국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항섭 교수(한신대학교 종교학과)는 가톨릭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교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교황으로 인한 쇄신의 바람이 불지 안 불지는 오롯이 한국교회에 달렸고, 우리 신자들의 몫이다."고 말했다.

차동엽 신부(미래사목연구소 소장)는 "한국교회의 특성을 잘 살려 교회 안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특히 사제들의 강론 등을 통해 교황의 가르침을 폭넓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원준 박사(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는 "사회교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의 가난의 영성,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에 대한 연구도 좀 더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황청 주재 한국대사를 지낸 성염 전 대사는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미 '거시적' 자선을 논함으로써 프란치스코 교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며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교황의 가르침을 성찰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과 시복식을 위한 기도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평화의 사도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시복식을 통하여
선교사 없이 시작된 한국천주교회를 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시아 청년대회를 통하여
아시아의 청년들을 한국 땅에 불러 주시고
새로운 복음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두 순교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신앙의 새로운 열정으로
저희 자신과 교회와 사회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게 하소서.
고통 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신앙의 빛을 전하며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문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아시아의 복음화에 헌신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착한 교황 요한 23세,
가정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식

복자 요한 23세 교황(재위 1958~1963년)과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재위 1978~2005년)이 4월 27일 성인품에 올랐다. 두 교황이 동시에 시성되기는 가톨릭교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정리: 강성화 편집위원

"두 교황은 신앙 속에서 당대 가톨릭교회의 쇄신과 적응이라는 도전에 응답한 용기와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제이자 주교, 교황으로서 이들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20세기의 비극을 겪었지만, 이에 꺾이지 않고 가톨릭교회의 개혁과 쇄신을 이끌었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성미사 강론 중)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 제2주일이자 하느님의 자비 주일인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광장에서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시성을 공식 선포했다.

교황은 또 이날 미사 강론에서 "복자 요한 23세는 특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소집하고 개막해 교회의 고유한 특질을 유지하면서 쇄신과 적응을 이뤄 나가는 길을 열었다."면서 "이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로 '성령에 열려 있는 교황'이셨기에 가능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복자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정의 교황(Pope of the Family)'이셨다."고 말하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오는 10월과 2015년 10월에 열릴 두 차례의 '가정' 주제 세계 주교 시노드로 가는 길을 교회에 열어 놓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요한 23세는 시복된 지 14년 만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시복된 지 3년 만에 성인 반열에 올랐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두 교황을 동시에 시성하는 기록을 남겼다. 특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시성 관련 절차법이 마련된 이후 가장 단기간인 사후 6년 만에 시성됐다. 한편 성 요한 23세의 축일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막일인 10월 11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축일은 성인의 교황 즉위일인 10월 22일이다.

성 요한 23세 교황은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교황으로, '착한 교황'으로 불린다. 이탈리아 북부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904년 사제품을 받았고 1921년부터 교황청 포교성성(현 인류복음화성)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1953년 추기경으로 서임된 그는 1958년 77세 나이로 교황에 선출됐다. 교황 피선 후 첫 번째 열린 추기경 회의에서 추기경 숫자를 70명으로 제한하는 식스토 5세(1585~1590년) 규정을 폐지하고, 1958년 23명의 새 추기경을 임명했다.

교황은 1962년 3월 10일 한국교회 '교계제도'를 설정했다. 한국교회는 이로써 지난 130여 년간의 선교지 교구에서 벗어나 정식 교구의 자격을 갖추게 됐고, 한국교회 주교들은 교황의 대리인인 '사도의 후계자'로서 교구 관할 전권을 행사하게 됐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정식으로 초대돼 보편교회의 당면 과제에 협력하고, 중대 사안을 함께 결정하는 완전한 형태의 지역교회로 인정받게 됐다.

또 교황은 교황 즉위 이전 프랑스 주재 교황대사로 재임하면서 1948년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 한국대표단 수석대표 윤석 장면 요한 박사를 여러 나라 대표에게 소개했고, 그 뒤 50여 나라로부터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요한 23세의 가장 큰 업적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소집이다. 그는 취임 100일이 채 되지 않은 1959년 1월 25일, 바오로의 개종 축일 미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지금 교회는 답답하니 "창문을 열고 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으면 한다."며 제2차 바티칸공의회 소집을 선포했다. 워낙 고령인 탓에 과도기 교황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1962년 10월 현대 가톨릭교회의 변혁을 이끈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 개막을 주재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공의회 폐막을 보지 못한 채 1963년 선종했다.

5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그는 가톨릭교회가 새 천년 전야의 인류를 향해 열린 교회가 되도록 초석을 다졌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폴란드 바도비체에서 태어나 1946년 사제품을 받고, 1958년 폴란드 최연소 주교로 임명됐다. 1963년 크라쿠프 대주교에 임명됐고 1967년 추기경에 서임됐다. 1978년 10월 16일, 58세의 젊은 나이에 제264대 교황으로 선출된 요한 바오로 2세는 426년 만에 처음 선출된 비이탈리아인 교황이자 폴란드 출신 최초 교황이었다. 그는 피선 이튿날인 10월 17일 추기경단 연설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온전한 실현에 헌신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는 27년간 교황으로 재임하면서 평화의 사도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다.

1981년 5월 13일 오후 5시 17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충격적인 일이 그에게 찾아왔다. 알리 아그자라는 터키인 청년이 수많은 인파 속에 있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향해 권총 두 발을 쐈

다. 교황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교황 저격 배후에는 당시 동유럽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교황에게 불만을 품은 소련 공산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황은 저격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나흘 후에 "나는 내게 총을 쏜 우리의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습니다."라는 말로 알리 아그자를 공개적으로 용서했다. 2년 6개월 후, 교황은 알리 아그자를 만나기 위해 로마 인근 레비비아 교도소를 찾았다.

교황은 1984년 5월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사목방문한 교황이다. 그는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시성식을 주례해 103위 한국 순교 성인을 탄생시킴으로써 한꺼번에 100명이 넘는 성인을 교황청 밖에서 시성하는 첫 기록을 남겼다.

또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 때 다시 방한해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표현했다. 그의 두 차례 방한은 민주화를 갈구하던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한국교회 교세 성장에도 일조했다. 그는 또 한복을 입은 한국인 신자를 만날 때면 "찬미 예수님"이라며 먼저 인사하고, 수시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세계 교회에 호소해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친숙한 교황으로 사랑받고 있다.

교황은 인종 · 종교적 갈등과 대립의 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의 화해와 평화를 호소했다. 포클랜드 전쟁과 걸프전, 유고슬라비아 사태, 르완다 내전 등 교황은 분쟁이 발생하는 곳이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평화와 화해를 호소했고 세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1986년 4월, 교황은 가톨릭교회 수장으로서는 처음 유다교 회당에 발을 들여 놓았다. 1986년에는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세계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기도 모임을 개최하는 등 종교 일치 운동에 힘썼다. 1990년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통해 소비에트 연방과 처음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교황은 2005년 4월 2일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지상순례를 마감했다. 선종 때 이미 "산토 수비토(santo subito, 즉시 시성을)"라는 환호를 받은 교황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교의 일치와 타 종교와의 대화를 위해 헌신한 평화의 사도로 칭송받고 있다.

복음으로 가면 모든 게 분명해요

지난 5월 31일 주교회의 복음화위원장으로서 복음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주교구장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74세)를 서울 중곡동 주교회의에서 만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복음의 기쁨」을 널리 알리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는 이 주교에게 교황과 주교, 그리고 교황 방한을 주제로 이야기를 청해 들었다.

대담 · 정리: 배봉한 편집위원

"교황님께서는 '나는 로마의 주교'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하셨어요. 교황이라는 명칭에 익숙해 있던 주교들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거기서부터 무언가 다른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 뒤에 이분의 언행과 행보에서 정말 로마의 주교로서 당신 백성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사목자라는 것이 강하게 보였지요.

이분 언행을 살펴보면, 이분이 그동안 로마 주교라고 하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로마의 주교라는 표현은 전 세계 수많은 주교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교들의 수장으로서는 어떻게 하실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 운영 방식과 조직에도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방정교회 쪽의 전통을 보면 거기는 시노드가 주요 논의 기구인데, 시노드란 말 그대로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인데, 그 안에 누구도 우리 식의 교황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분이 그것을 검토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머릿속에 교회는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점에서 '하느님 백성'이라는 이미지가 지금같이 이렇게 강하게 떠오른 때가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나와 20여 년 동안 각광을 받다가 조금 가라앉았다가 지금에 와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크게 부상시킨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지금까지 흔히 들었던 여러 가지 말도 이분에게서 아주 새롭게 들리는 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누구도 공동체를 떠나서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구원될 수도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 누구도'라는 말에는 교황 자신도 포함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자기가 누군지 비로소 밝혀지고 하느님 자녀로서의 의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 자체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세월호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배에 평형수가 충분하면 오뚝이와 같아

에 와서 그 언저리에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세상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한 교구의 교구장으로 계시면서 또 로마를 자주 출입할 수밖에 없는 추기경이 된 다음부터는 더욱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가 자체 유지라든지 그 동력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을 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누구보다 철저히 체험하신 거지요. 그래서 자꾸 밖으로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관심사나 모든 동력이 밖을 향해 있어야지 안을 향해 있으면, 이미지의 달인인 이분 표현대로, 박물관의 석상과 비슷하고 점점 미라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선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든지 상처가 나 죽든지 하는 것이 안에 있다가 미라가 되는 것보다는 천 배나 만 배나 낫다는 거죠. 이분이 예수회원이라 예수회를 창립한 이냐시오 영성을 가지고 계신데요. 군인이었던 이냐시오가 보통 사람을 군인으로 만드는 군사기법을 정신세계에 도입해 만든 것이 영성훈련이에요.

'수련'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훈련'이에요. 흐느적거리던 청년을 데려다가 몇 주간 만에 빳빳한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훈련인데, 거기에 못지않은 훈련을 통해서 정신계 속에서도 그런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쓰시는 표현대로 전쟁이 벌어지는 일선을 알려면 거기 가서 살아야 한다는 식이죠.

배가 기울어져도 쓰러지지 않지요. 교황님은 그 평형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느님 백성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 앞에서도 근본적인 오류로 빠지지 않는 것은 하느님 백성 전체이지 그가 교황이라고 해도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관념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변화지요. 그러니까 주교도 하느님 백성이라고 규정하는 교회 안에서 보아야 내가 누군지 알고 자기 신앙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고 이러는 것이지, 교회 구성원 그 누구도 거기서 빠져 나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성모님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신학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나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지 알고 싶으면 교우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은 함의가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구성원을 전체 구성 안에 넣어놓고 보아야지 누구만 따로 떼어놓는 방식은 이미 정확하게 보기 위한 틀에서 벗어난 거라는 겁니다.

그간에 우리 교회가 하느님 백성보다 교계제도에 두드러지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래

2008년 하느님 말씀을 주제로 한 제12차 시노드(세계주교대의원회의)와 2012년 새로운 복음화를 주제로 한 제13차 시노드가 열렸는데요. 하느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가?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한마디로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만 복음선포지 인간적인 말만 많이 하고 하느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제12차 시노드에서 해답이 벌써 나왔다는데, 새로운 복음화를 주제로 한 제13차에서는 무슨 얘기가 더 나올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시노드 후속 권고 문서를 만들까 생각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나왔던 어떤 교황 권고보다 더 놀라운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 몇 달 사이에 교황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복음의 기쁨」에는 시노드 후속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16항에서 이것을 밝히죠. 이번 시노드 교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교황님 의견도 대폭 첨가했다는 거죠. 이분이 2007년 열렸던 남아메리카 주교회의 연합회의 아파레시다 문건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일을 했고, 거기 표현들을 거의 글자 그대로 옮겨놓은 것도 많아서 「복음의 기쁨」이 풍성한 문헌이 된 거죠.

「복음의 기쁨」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교회 전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가 지각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무엇인가로 시작해서 그 안에서 나는 누구냐 하는 데 이르기까지 아주 심층으로 들어가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에 있어요. 지금 당장에 가시적인 방법으로 그 변화가 다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도 뒤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으로만 하고 말았으면 감동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에 모범을 보여 주시니까 말씀이 크게 울리는 겁니다. 요즘 같은 IT 세상에서는 이것이 더욱 부각되지요. 옛날 같으면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전 세계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분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어떤 단계에서든지 하느님께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볼 수 있는 표지도 항상 같이 보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이 되신 말씀이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표지라는 말이에요. 크든 작든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이 표지요 기적이에요.

지금 교황님이 그 둘을 하신다 말이에요. 이렇게 뚜렷하게 하시는 교황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매체가 있는 시대에 그런 분이 나타나셨기에 가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인류 전체에까지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몸으로는 그렇게 못 살더라도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성을 건드려 주니까 감동하는 거지요.

교황님 방한을 두고 한국, 한국 하고 너무 강조하면 가톨릭이 못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라는 말도 이제는 재고해야 한다는 말도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그래도 모든 지역은 그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민족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형성되어 온 문화는 특별한 점이 있으니까 그 고유성은 서로가 존중해야 하겠지요.

고유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인데, 나는 다르다고 자기가 말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정해 주어야 해요. 자기 스스로 나는 다르다고 하면 이상하고 본래 취지에서 비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우리 고유성을 너무 주장하다가 보편교회하고 소통이 그만큼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교황님도 유럽 문화가 아무리 빼어나고 훌륭하다고 해도 그것을 다른 민족에게까지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요. 교회가 2000년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물론 좋은 것을 많이 축적했지요. 그런데 버리거나 적어도 상대화해도 좋을 것들이, 한 시대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의미 없는 것들이 많다고 보시는 거지요.

복음으로 가면 모든 게 분명해요. 동성애자,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 한동안 교회를 옴짝달싹못하게 잡고 있던, 이분은 강박관념이란 말을 쓰셨죠,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내칠 것인가 끌어당길 것인가. 강도 도둑 창녀 죄인이라고, 상대 못할 인간이라고 끼어주지 않던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복음에 가면 너무나 확실한데, 어느 결에 우리는 그런 시각을 놓쳐 버리고 교회 역사 속에 형성된 관념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복음에 들어가 보면 물을 것도 없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왔던 것이 내 자신의 기질, 내가 몸담아서 자라온 문화, 내 가치관 등이었다고 고백한 이가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진리에 그렇게 많은 중요성을 두는 동안 실천적인 것을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앎 따로 삶 따로, 자신도 별로 변하지도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왔다는 거지요.

「장자」 천도편에 보면 '환공과 윤편' 이야기가 있지요. 성현의 글을 읽는 임금을 보고 수레바퀴를 만들던 노인이, 하찮은 바퀴 만드는 것도 말로 안 되는데 삶이라고 하는 그 복잡한 것을 죽은 성현의 글 몇 줄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고 하잖아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바퀴 하나도 못 만드는데 삶에 관한 이야기를 천 년 만 년 만들고 있으면 바뀌느냐는 거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분을 보니까 그게 뭔지 알 듯합니다.

충주, 영죽 공소

"공소는 민초여, 민초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여."

충주에 있는 영죽 공소의 한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공소는 민초입니다. 평신도이자 백성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많은 민초들의 희생이 밑거름되면서, 그렇게 밟히고 밟혀도 민들레처럼 여기 저기 싹을 틔우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박해와 희생에도, 진리와 정의라는 큰 물은 당연히 바른 길로만 흘러갑니다.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는 일들이 지금은 당연한 진리이고 정의인 것을 보면, 민초들에 의하여 흐르는 물은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더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초들의 믿음이 아직도 남아 있는 이곳이 좀 더 튼튼히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하는 작은 기도를 해봅니다.

사진 · 글 : **김한얼** 우린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blog.naver.com/holeinone88)

주님께서 주신 선물

아내가 남편에게

김종숙 요안나 대구대교구 경산 성당

내 남편 이시도르, 키 180cm에 62kg, 먹는 양은 많지만 살은 죽어도 찌지 않는 체질, 성격은 급하고 예민한 편, 음악은 장르 불문하고 작사 작곡까지 자칭 수준급이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술술 이야기를 잘 풀어가고 어떤 자리에서도 분위기를 잘 살리는 분위기 메이커이다. 이웃들의 고민거리도 잘 들어 주기도 하고, 복잡한 고민들을 단순화시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 주는 배려가 깊은 사람이다.

나에게 이시도르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다.

무엇이든 해결해 주니까. 처음 도자기를 시작하고 작업실을 차릴 때부터 모든 일을 쉽게, 그리고 급한 성격처럼 서둘러 해주니 나는 모든 일이 쉽게 되는 줄로만 알았다. 전시회를 여는 것도 작품을 운반하는 것도 이시도르가 다 알아서 해주니 나는 그냥 작품을 만들기만 할 뿐이었다.

근데 최근에는 목공을 시작하여 나를 놀라게 한다. 나의 작업에 필요한 나무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직장에서 퇴근한 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목공방으로 가서는 늦은 밤까지 나무를 다듬고 작품(?)을 만들고 하기를 벌써 3년.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 즐겁다고 피곤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 내 남편 이시도르.

며칠 전에는 딸아이에게 줄 예쁜 화장대를 만들어 왔다. 엄청 무거울 텐데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가슴이 찡해왔다. 혼자서 그 큰 작품을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반드시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할 작업일 텐데, 그것은 딸아이에 대한 사랑이리라 생각한다.

큰애가 막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내가 잠깐 이웃과 이야기하는 사이 아이가 넘어져 플라스틱 화분에 얼굴을 크게 다쳤다. 아이의 얼굴에 큰 흉터가 남을 정도의 사고였지만 나를 나무라기는커녕 약국에 가서 청심환을 사와서 먹으라고 했다. 얼마나 놀랐느냐며 오히려 다독거리던 사람이다. 지금까지도 그 일로 나를 원망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다. 매일을 가족을 위해 일하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 우리 이시도르.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힘들다고 하지 않는 슈퍼맨!!

우리 이시도르를 누가 나에게 보내셨나?

나는 주저없이 "주님"이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당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1982년 가을 어느 주일 날 성당 언덕길을 뛰어올라가던 나에게 성당에서 성큼성큼 걸어내려오며 툭 던지는 말 "미사 벌써 시작했는데요. 가셨다가 저녁 미사 오세요!"

그 후 우리는 함께 걸었다. 32년이 지난 지금까지(지금도 미사 시간은 늦으면 안 된다. 최소한 미사 시작 20분 전에는 성당에 가 있어야 한다.)

산다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닐진데

남편이 아내에게

김성도 이시도르 대구대교구 경산 성당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마태 25,15)

늦은 밤까지 아내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아픈 팔을 잊고 작업을 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한쪽 가슴이 싸한 것이 편치 못하다.

그해 여름, 대구대교구 내당 성당에서 산간학교를 끝내고 주일학교교사연수회를 가게 되었는데 나는 교사도 아니면서 산간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교사회에서 함께 가면 좋겠다고 지도신부님(정홍규 신부님)께서 말씀하셔서 동행하게 되었다.

연수회 도중 그저 수수하고 평범한 어린 여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우연히 성당 입구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자신감이 충만하던 젊은 시절 "우리 데이트할까?"라는 나의 제안에 싫지 않은지 그녀가 따라 나섰다. 그렇게 사귀게 되어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다.

결혼 후 나의 방황과 자유분방함으로 인해 그녀는 많은 인내와 가슴앓이를 해야 했고,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감사하며 살아라."는 나의 말에 그녀는 순종하면서 잘도 따라주었다.

"그분께서는 지식과 이해력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과 악을 보여 주셨다."(집회 17,7)

누구의 삶에서든 어려움과 고통이 있듯이 나에게 '정의로운 선택의 가난'과 '거짓과 비굴함의 경제적 풍요로움'이라는 갈림길이 주어졌을 때 "여보, 우리 가난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선택하자."는 요안나의 결단을 보고 '나, 장가 잘 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형편에 맞게 경산 자인으로 이사를 했다. 그 후 몇 해 동안 나는 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요안나는 시골집에서 밭일을 하며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던 중에 억척 같은 노동은 나를 피로로 몰아갔다.

"여보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없어도 당신이 생활할 수 있게 무언가를 배워라."라는 나의 말에 요안나는 컴퓨터 사용법과 운전면허, 도자기를 배웠다. 컴퓨터와 운전면허는 이해가 가는데 도자기는 돈도 많이 들고, 당시에는 시골에서 배울 곳이 없어 대구까지 가야 하므로 불만이 많았다.

> “‘정의로운 선택의 가난’과
> ‘거짓과 비굴함의 경제적 풍요로움’이라는 갈림길이 주어졌을 때
> 여보 우리 가난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선택하자.”

원래 요안나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고 무엇을 만드는 데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형편이 조금 나아져 대구로 이사를 하였고 요안나는 도자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런데 성모상만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만 하고 있다. ‘흙으로 만든 한국의 어머니 모습의 성모상.’ 지금은 보편화되었지만 당시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한국의 어머니 모습의 성모상,

늦은 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과 희망이 있지만,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나의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고 순간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발전하는 미래형 인간보다는 함께해 주신 주님과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과거라는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요안나를 만나기 전 생략된 나의 과거 이야기에는 스스로가 불편하고 순리적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옹졸하고, 급한 성격을 가진 내가 긍정적이고 매사에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안나를 저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의 결과는 요안나를 통하여 완성으로 이끄신다. 요안나는 오늘도 늦은 밤까지 ‘주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편안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요안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상최고 선물이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가꾸고 더욱 풍요롭게 하여 요안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과 웃음을 전할 수 있고,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겠다.

이시도르는 요안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촛불을 켜고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자 김지영에게

대부가
대자에게

최홍운 베드로 아차산 성당

평소 어떻게 지내는지 늘 궁금하던 대자 김지영 이냐시오 이사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게 되니 막상 무슨 말부터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서울 중구 태평로 쪽을 지나칠 때면 나의 평생직장이었던 서울신문사가 있는 프레스센터를 무심코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 우리 김 이사가 일하는 신문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오늘은 또 어떤 기사를 심의하면서 속상해 하며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오.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가벼운 미소를 짓곤 한답니다. “회사도 달랐던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사이가 되었지?” 하는 생각도 해보지요.

경향신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부 기자와 부장 및 논설위원과 편집인 겸 편집국장, 편집 상무까지 지낸 김 이사와 만난 지도 어언 40년 가까이 흘렀군요. 소속 회사를 떠나 우리는 잘 통했습니다. “언론이 언론다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흰 것은 희다, 검은 것은 검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서로 믿었으니 우리는 너무나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엄혹하던 유신과 군부 독재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면을 통해 “흰 것은 희다, 검은 것은 검다.”고 똑바로 말하지 못했던 아픔으로 고통을 겪었지요. 그런 와중에 김 이사는 군사 정권이 연일 집회와 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던 학생들을 억누르기 위해 소위 ‘학원 안정법’이란 악법을 제정하려던 음모를 취재해 특종 보도한 적이 있었지요. 그 일로 당시 안전기획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렀던 일을 잊지 못합니다. 김 이사는 늘 정의로웠고 기자다운 기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1987년 ‘6.10 항쟁’으로 언론사에도 노동조합이 잇따라 생겨나자 나와 김 이사는 나란히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의 노조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오직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고 불편부당한 언론의 정도를 걷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마음 아파했습니다. 김 이사는 그런 마음을 안고 1994년 미국 클리블랜드 대학교로 훌쩍 연수를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날아간 김 이사가 1995년 봄 어느 주일 저녁 무렵,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데 대부를 서 달라.”는 것이었지요. 너무나 놀란 나에게 “모교인 동성고등학교 출신 가운데 유명한 신자 선배들이 많이 계시지만 최 선배의 얼굴이 ‘탁’ 떠올라 전화하는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내가 동성고와 한 울타리에 있던 소신학교인 성신고교 출신 언론인이었던 점이 높

작년 말 가톨릭언론인산악회 성지순례 때 성바오로수도회 주문진 피정의 집에서 촬영한 사진.
오른쪽 넷째가 대부 최홍운이고 다섯째가 대자 김지영이다.

은 점수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동성고와 성신고는 '구원의 베리따스(Veritas, 진리)'를 배운 한 뿌리의 형제였습니다. 김 이사가 세례 받은 이유도 동성고에서 배운 '진리의 가르침' 덕분이었다는 말을 듣고, 과연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김 이사 귀국 후 우리는 마음으로뿐 아니라 삶의 궤적도 비슷했습니다. 내가 서울신문에서 편집인 겸 편집국장을 하면 김 이사가 경향신문에서 뒤이어 그 일을 했습니다. 또 신문사 교우회장과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UCIP) 회장, 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 가톨릭언론인산악회 회장직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맡았습니다. 세례성사에 이어 견진성사 대부와 대자 관계로도 이어졌지요.

"존경하는 어른이 잇따라 세상을 떠난 자리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김 이사는 올해 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새해 결심 10가지'를 받아 보고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곱 번째, '생각이 다른 사람과 벗하기'에서 많은 고민 끝에 자신의 올해 목표로 설정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흐뭇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덕목을 실천하기란 힘든 일이지요. 불의와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는 김 이사에게야 더 무슨 말을 하리요. 김 이사는 힘들어 하면서도 그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고지를 정복하십시오. 기도로 힘껏 돕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함께 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큰 슬픔에 잠긴 그들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숲속 새 길을 갈 때, 대부님이

대자가 대부에게

김지영 이냐시오 EBS 이사

대부님과 제가 걸어온 '기자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데드라인의 벼랑 끝에서 벌이는 사투로 정신과 육체는 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널리즘이라는 목표가 그만큼 숭고하기 때문이겠지요. 또 저로서는 진정으로 원하던 일이었기에 정말이지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건,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1985년 '정부 · 여당 학원 안정법 추진' 기사로 남산의 안기부 지하실에서 고문을 당하고는 1987년 민주화 뒤 '언론자유'를 기치로 출범한 노동조합에 자연스럽게 참여했습니다. 이어 경향신문사를 한화그룹이 인수할 때 정부 압력으로 노조 출신 기자 5명이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되자 살아남은 저는 노조위원장이 되어 '해고 5인 복직 투쟁'을 벌였고요.

당시 일부 선후배들은 "전략적으로 일단 퇴사하면, 합작 뒤 복직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새 체제가 되자 돌아보지도 않는 것은 물론, 해고된 기자와 저를 모함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기자사회라면 그만두자."고 마음먹었는데 한 선배의 적극적 만류와 권유로 해외연수를 떠나게 됐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고 도망가듯 떠나간 곳, 생면부지의 머나먼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교민이 제 등을 성당 문 안으로 사정없이 떠밀었던 것입니다. 길고도 추운 클리블랜드의 겨울, 저는 손을 호호 불어가며 열심히 교리교육을 받았습니다. 배신하지 않을 분의 옷자락을 절박하게 부여잡고.

1995년 4월 세례식을 앞두고 대부님을 정해야 했습니다. 주위에 천주교 신자들은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마음에 딱,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잠이 설핏 들었는데 '최홍운 선배'가 스르륵!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맞아!" 즉각 저는 서울의 최 선배에게 전화를 했었지요.

제 집안은 유교 전통이 강했습니다. 자랄 때는 친가나 외가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대부님은 대대로 독실한 교우 집안 출신에 신학교 출신. 초짜 대자로서는 얼마나 든든했던지요. '기자 동지'에다 저보다 앞서 노조위원장을 지내셨고요. 고향이 경북 영천인 대부님 집안은 제 외가와 한 동네 이웃이기도 했다면서요? 작심하고 맞춘다고 해도 어디에서 이런 대부님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회장일 때 저를 감사라는 직책으로 불러들이셨지요. 그날 이후 매사 대

>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고 도망가듯 떠나간 곳, 생면부지의 머나먼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교민이 제 등을 성당 문 안으로 사정없이 떠밀었던 것입니다. 길고도 추운 클리블랜드의 겨울, 저는 손을 호호 불어가며 열심히 교리교육을 받았습니다. 배신하지 않을 분의 옷자락을 절박하게 부여잡고.”

부님의 발자국을 밟고 가게 됐고요. 가톨릭신문 출판인협회 회장, 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에, 신문사는 다르지만 노조위원장에 이어 편집국장까지.(꾸르실료 입소와 가톨릭언론인산악회 회장직만큼은 대부님이 제 뒤를 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저는 클리블랜드에서 ‘아름다운 숲속의 새 길’로 들어섰고, 대부님은 제 손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언 20년이군요. IMF사태 이후 무너진 가톨릭언론인회를 다시 세우자던 대부님을 따라 ‘초짜’인 저도 노심초사하던 일부터,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진리의 품 안에서 오가는 신자 언론인들만의 자유롭고 위트 넘친 대화와 술잔은 또 얼마였는지. 그 기간, 저는 가슴 벅차게 몇 가지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사회교리를 처음 접하고는 ‘기자 신자의 도리는 사회교리를 글에 반영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사형제 폐지’ 등 사회교리로 경향신문의 논조를 가다듬었습니다. 교회의 국제 뉴스가 있을 때마다 신문 · 방송들이 용어를 잘못 쓰는 경우를 보고 “미디어종사자들을 위한 용어집이 있었으면…” 하고 염원했는데요. 결국 김민수 신부님 지도 아래 대부님 · 임영숙 선배와 함께 까다로운 작업 끝에 주교회의 명의의 용어집을 펴내 전국 매체에 배포하게 됐지요.

고향인 영주 무섬마을의 큰집은 당호가 해우당(海愚堂), 현판은 홍선대원군의 친필입니다. “천주교를 박해한 대원군의 친필 현판 아래에서 미사를 드리는 날이 올까? 역사의 화해가 이뤄지는 감동일 텐데…” 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60명의 가톨릭언론인산악회 성지순례단이 우리 동네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큰집 대청마루에서 성바오로수도회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님 집전으로 미사를 드렸고, 그 감격에 제가 울었던 일, 기억나시나요?

더 감격스러운 일은 평생 ‘예수쟁이’를 싫어하시던 어머니가 병상에서 자청해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지요.

돌아가신 뒤에는 허영엽 신부님 등 여러 신부님과 수녀님 · 교우님들이 영전에서 미사와 함께 연도를 했었죠. 대부님, 그 뒤 제 가족과 형님 가족이 모두 차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부님 집안과 같은 ‘명문’은 아니지만 이제 갓 핀 작은 신앙의 싹에 큰 꿈을 걸고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딸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백홍렬 프란치스코 인헌동 성당

내가 너를 처음 맞이하던 여름에 나는 여름휴가를 미룬 채 네가 태어나기만 기다렸다. 그리고 토실토실하게 살이 통통하게 오른 너의 모습에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나는 ‘Gone with the wind.’에서 Rhett Butler가 말을 타고 동네 나들이를 나갈 때, 반드시 딸을 안고 다녔던 모습을 상상하며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너는 늘 통통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어릴 적부터 병치레 한 번 없이 무럭무럭 잘 자랐고, 총명한 모습으로 나를 늘 기쁘게 해주었지. 동생이 태어났을 때도 동생을 귀여워 하였고, 너희 오누이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지금까지 다정스럽게 지내는 것을 보면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너는 어릴 때부터 늘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배려하였고, 학생시절부터 용돈을 모아 기부하는 것을 즐겼지. 나는 너희들이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보다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 내가 늘 존경하는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무엇이 될까보다, 어떻게 살까를 꿈꾸라.’는 메시지를 청소년들에게 남기셨는데,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다. 내가 가끔 명문학교(?) 이야기를 한 것은 너희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갖추면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한 것이지, 그것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나는, 네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항상 배려하던 모습이 참으로 좋았다. 너는 중계동 시절에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비교적 어려운 동네 사람들을 위하여 성가 경연대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결손가정인 친구들을 위하여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후 아빠, 엄마가 학교로 데리러 오는 것조차 말렸던 너석이었지.

그리고 네가 나의 병상 옆에서 밤을 새며 석사학위 논문을 썼던 것도 나의 행복이었고, 네가 국내에서 좋은 취직 자리를 마다하고 유학을 떠나던 당찬 모습도 나에게는 행복이었다. 먼 나라로,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이 혼자의 힘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늘 바라던 바가 아니었더냐?

또 그곳에서 나에게 지금의 사위를 만나게 해준 것도, 네가 나에게 준 선물이었고, 너를 통한 또 다른 만남이었지.

그리고 마침내 네가 핀야를 낳으면서 나는 너를 통해 세 번이나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주님의 뜻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주님, 제게 소중한 아내와 훌륭하게 자란 딸과 아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딸이 아버지에게

백수진 글라라 독일 에시바일러 거주

이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다. 30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놀러 오시기로 했는데 건강을 이유로 의사가 아버지의 비행기 여행을 허락하지 않았단다. 세상의 많은 부분이 편리해진 덕에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초 단위로 주고받다 보니 잊고 있었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시절 나는 늘 서울에서만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다. 그곳은 광역시일 정도로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깍쟁이로 태어난 나는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시골도 아닌 그곳이 마냥 싫었다. 그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편지가 생각난다. 네가 늘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이곳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큰 벚나무가 서 있고 봄이 되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이곳을, 언제든지 마당에 나가서 햇볕을 쬘 수 있는 이곳을, 세월이 흐르면 아름답게 회상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작년에 우리 부부는 마당이 있고 나무가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오래된 집이라 수리할 곳이 많아서 6개월째 공사 중이지만, 아기가 자라면 마당에 모래성도 쌓고 나무집도 지어서 함께 놀 생각에 설렌다.

아빠는 어릴 때부터 나나 동생,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셨다. 매일 얼굴을 보면서 회사에서 집으로 편지를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꼭 우표를 붙여서 집주소로 부치는 게 웃기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만큼 아빠가 우리와 소통을 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 술이 취해서 어릴 적 얘기를 할 때면 그것도 그렇게 귀찮고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잘 좀 들어줄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생각해 보면 부모님 두 분 모두, 자신들이 부모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제로 시킨 적이 없었다. 어릴 때는 주로 부모님과 매주 주일미사에 함께 참석했지만 강요는 하지 않으셨다. 지금도 사실 매주 미사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의 경험 때문인지 성당은 나에게 편안한 곳이다. 성당 앞을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가서 생각도 하고 하느님과 대화도 하고 힘들면 울기도 한다.

어릴 땐 엄마 아빠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투정하곤 했는데, 아이를 낳고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부모님을 원망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직 아빠가 내 딸 핀야를 실제로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나는 현재 독일에 살고 있고, 학교, 직장, 휴가 등을 핑계로, 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 자식보다 예쁜 것이 자식의 자식이라는데 어찌나 안타까운지……하지만 알고 있다. 또 우리가 한국에 가면 아빠는 늘 그랬듯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거라는 걸. 핀야가 할아버지와 만날 날을 기대하며.

열여섯 소녀의 모습으로 나의 기억 속에 머문 소녀 '조추자'

스승이 제자에게

박정숙 이사벨라 한국평협 교육위원장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8)

조추자! 열여섯 살 소녀의 모습으로 나의 기억 속에 머문 너 '추자'! 작은 키에 눈이 반짝이고, 언제나 수업시간에는 긍정의 미소로 눈을 맞추어 주던 그 소녀, 언제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던 귀여운 소녀의 그 모습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단다.

사십 년이 훌쩍 지난 지금, 두 자녀의 어머니이자 착실한 남편과 함께 따뜻한 가정 성소를 이루고, 큰아이가 벌써 고3이 된 중년이지만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너는 아직도 교복을 입은 학생의 모습이구나. 어느 새 자랑스러운 교사가 되어, 지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네가 아파할 때도, 잠 못 이룰 때도 너의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하느님 사랑을 전하며, 너로 인해 그들 자신이 이 시대의 소중한 존재이며 큰 희망인가를 배우고 있겠지? 너 또한 많은 어려움조차 믿음과 희망으로 오늘을 가꾸어온 나의 제자였으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사로 살아가는 너를 믿고 사랑한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최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주시던 선생님들의 고귀한 삶의 모습을 보며, '교사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단다. 조추자 선생님! 하느님께서 이 땅에 당신 구원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마리아를 선택하셨듯이, '교직'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친히 뽑아 세워주셨다고 나는 믿는다. 교직에는 책임과 의무보다 사명감이 먼저이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는 것 또한 주님의 은총이심을 믿는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39년이란 긴 교사로서의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이 참 많더구나. 늘 힘들고 바빴던 그 길에서 대단한 영광도 권력도 없지만, 사랑과 기쁨 그리고 아픔도 함께 나누었던 학생들은 나에게는 소중한 자녀이자 동반자이며 또 나의 삶의 스승이었음을 고백한다. 오늘은 이렇게 너와의 빛나는 추억을 꺼내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 또한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르겠구나. 퇴임 후 나의 작은 삶을 주님께 봉헌하는 신앙의 여정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에게 그들의 길에서 일구어낸 영광을 전해 주는 소중한 보람을 어느 날 너도 느낄 수 있을 거야.

추자야, 사랑이신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자.

나의 성모님, 나의 은사님

제자가 스승에게

조추자 벤자민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교사

선생님, 신록의 푸르름이 날로 더하여 울창한 그늘을 지어주는 요즘,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수줍음 많고 세상에 대해 잔뜩 주눅이 들어 있던 저에게 다가오신 세련된 미모의 영어 선생님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셨으며 수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학급 담임선생님이 되셔서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지혜롭고 현명하셨던 우리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항상 제가 가진 능력보다 높게 평가하고 이끌어 주셨기에 저 또한 선생님의 기대에 따르려고 노력하여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이 없고, 독서실 다닐 형편도 안 되어 교실이 유일한 저의 공부방이었던 시절, 저는 연중무휴로 등교하여 공부를 하곤 하였습니다. 교정에 눈이 많이 쌓였던 어느 겨울날, 휴일 당직이셨던 선생님께서는 난방도 안 된 추운 교실에서 혼자 공부하던 저를 보시고 당직실 난롯가에 자리를 내주시면서 공부를 하게 해주셨지요.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히 높으셨던 선생님의 영향으로 저도 사도의 길에 들어섰고 시골 학교로 첫 부임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그곳으로 소포를 하나 보내 주셨지요. 하얀 양모 스웨터와 편지. 아, 그 스웨터의 따스한 감촉은 아직도 제 목덜미에, 그리고 손목에 남아 있습니다. 편지도 읽고 또 읽으며 외롭고 낯선 신임교사 시절에 힘을 얻곤 했습니다.

제가 용산국군성당에서 혼배를 올리던 날, 선생님께서는 병중이셔서 결혼식에 참석을 못 하시게 되자 사부님을 대신 보내셔서 저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중학생 시절이었던 10대부터 지금의 중년에 이르기까지 선생님께서는 늘 저의 생활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통해 처음으로 가톨릭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신앙인으로서의 참다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삶을 통해 저는 자연스럽게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영세를 받던 날, 선생님께서는 미사보와 묵주를 건네 주시면서 "예쁜 내 딸"이라고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미사보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곱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제지간이라고 하기에는 이야깃거리가 너무도 많은 '우리 사이'를 하느님께서는 신앙으로 다시 엮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자애로우신 모습에서 저는 성모님을 발견하였고, 선생님의 신실하신 음성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찾아 세상을 다니리라

이택영 히야친따 서울대교구 여의도본당

3년 전 당시 30세이던 아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뇌사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예기치 못한 하느님의 뜻이 저희 가정을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거기에 "왜?"라는 질문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저의 고통까지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와 저희 가족이 하느님께 "네"라고 응답할 차례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나의 정배'라는 젠 성가를 깊은 의미도 모른 채 멜로디와 노랫말이 좋아서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내게는 단 한 분의 정배가 있으니 십자가 위의 버림받은 예수, 내 일생의 모든 순간에 나는 그를 찾아 세상을 다니리라… 내게 남은 생애에 고통과 이별과 버림과 그분 자신인 모든 것을 나는 목말라 하리니 그는 고통인 때문이다.'

저는 이 노랫말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거룩한 뜻에 내 뜻을 합쳐 드리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지금 이 순간의 하느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떠난 아들은 이미 하느님 자비에 맡겨졌으니 저의 고통을 들여다 볼 필요도 없었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느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고 일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찢어지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남편을 마리아의 마음으로 끌어안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평소에 장기 기증을 하고 싶어 했던 아들의 뜻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아직 아들을 떠나 보낼 준비도 못한 채 망설이는 남편도 아들의 지갑 안의 첫 자리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장기기증 카드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음 순간 사랑해야 할 사람은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폭행했고 끝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알 수 있었기에 조심스레 남편에게 그 아이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단지 사고일 뿐이며 지금 그 아이의 고통도 우리보다 작지 않을 것이며 아들도 그 친구가 자신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사랑을 가지고 했을 때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남편과 아들을 병원에 남긴 채 저는 경찰서로 조서를 꾸미러 가야 했습니다. 거의 정신이 나가 있는 아들 친구를 마치 그의 어머니가 된 듯 "괜찮다, 괜찮다, 여기까지가 우리 아들에게 주어진 삶이었던가 보다. 오히려 네가

우리 아들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구나" 하며 안고 위로를 하면서, 떨리고 텅 빈 듯한 마음 안에서도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가득해짐을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동생을 지극히 사랑하는 딸을 세심히 사랑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장기 기증절차를 밟기 위해 아들을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후 저는 딸네 집으로 갔고 몇 시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아들이 병원에 있다는 말만으로도 패닉 상태가 된 딸에게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시킨 후 아기를 맡길 곳까지 수소문한 후 딸에게도 잘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고통 안에도 하느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포콜라레에서 들었던 말들을 주문처럼 조각조각 찾아내고자 애썼는데 그런 마음을 하느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아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오시기 시작했을 때쯤엔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강하던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악상 중 악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떠날 수 있었기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결혼을 안 했기에 또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남기지 않고 떠난 것,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렵게 아이를 가진 딸이 유산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시기를 넘겨준 것, 아기가 한참 재롱을 부릴 시기여서 저희 가족에게 위로가 되어 주는 때인 것 등이었습니다. 또 초, 중, 고, 대학 동기 동창 중에서 가장 먼저 떠난 아들의 죽음과 장기기증 소식은 친구들에게 강렬한 경험이었고 그 반향도 커서 장기 기증을 약속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에게는 신앙을 갖겠다거나 열심히 살겠다며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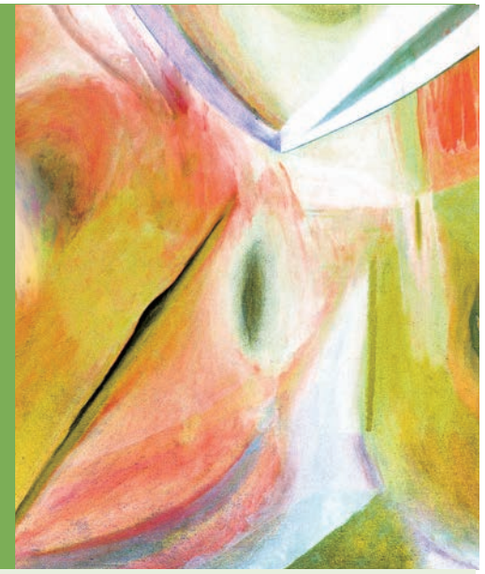
저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손으로 만지는 듯했으니까요. 고통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혼자 오시지 않고 언제나 사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고통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가끔 아들의 부재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이 살아있다면 했을 것 같은 뭔가를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저와 가족이 대신 하리라 마음을 먹게 해주심으로써 앞으로 저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리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느님께 맡겨 드린다는 것은 정말 자유롭고 평안한 거구나 생각하며 이제 모든 걸 정말 맡겨 드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복음말씀을 읽을 때도 그것이 아들의 죽음까지도 포함해 감사하라는 것이라곤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나의 마음을 합해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님을 알았습니다. 성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밀어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복음의 생명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 (2)

초기인간 생명인 인간배아의 생명권



과학이 아무리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아주 단순한 생명체 하나도 만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단계의 인간 배아를 소모품처럼 실험의 대상으로 하여 사용하거나 냉동된 배아를 폐기 처분하는 일들이 합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연구실에서 사물처럼 사용하고 버리는 인간배아는 인간존재가 아닌가?

인간배아는 어떤 존재이며, 배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많은 것을 함의한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발생된 배아는 성장발달 가능성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며,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완성된다. 인간배아는 인간과 다른 존재인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정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특징을 나열하다 보면, 한 인간의 생물학적, 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인간이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인간의 몸에 영혼이 깃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도 주요 논점이 되고 있는데, 이 논의는 육체와 정신이 분리될 수 있는 실체로 되어 있다는 실체 이원론의 수용에 기초한다.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언제부터 인간의 육신에 '영혼'이 존재하게 되는지 혹은 언제 생명을 불어넣는지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 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태 안에서 죽는 태아에게 영혼이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히 표명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수태에 뒤이어 어떤 명시되지 않은 시점부터 영혼이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인간 생명은 난자와 정자의 수정과 더불어 시작된다. 인간 생명의 출발 시점에 이미 유전적 개

체성이 결정되어 있으며, 한 인간 삶의 여정은 수정 직후부터 바로 시작된다. 정자와 난자는 수정 전에는 이것들이 유래된 두 사람에게 속하지만, 임신이 되면 어느 한 부모와 동일시할 수 없는 새로운 개체로 존재한다. 새로운 개별적 존재는 임신에서 시작한다.

어떤 이는, 배반포 단계의 내부세포괴는 태아로 성장하지만, 둘러싸고 있는 영양막은 태반과 부속구조물이 되기에, 배반포 단계의 배아는 장차 태아가 되지 않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 개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배반포 단계의 영양막은 한 개체를 불완전하게 만들거나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개체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며, 배반포 단계에서는 오히려 영양막이 있어야 온전한 한 개체가 되고, 다음 단계인 태아로 성장하게 된다.

수정란은 눈으로 보았을 때 매우 단순해 보이는 한 무더기의 세포이지만 그것은 한 개체의 또 다른 모습이며, 마치 나비가 발생과정에서 알-애벌레-번데기 등의 여러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형태적으로는 크게 다르지만 나비의 애벌레는 나비의 또 다른 모습이지 그 자체가 나비의 날개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나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새로운 중간 단계의 종을 정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수정란은 이미 한 개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생명체로서 지녀야 할 기본 특성을 이미 모두 갖추고 있다. 다만 생명 현상을 수행하는 구체적 기관의 구조와 스케일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인간 발달 과정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점진적인 발생의 과정에서 인간이 아닌 생명과 인간 생명 사이에 어떤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는 다음 단계를 위한 필연적인 상황이며 또한 다른 단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이고 더 근본적이라고 할 만한 순간이란 없다.

인간의 발달과정은 결코 선명한 경계선이 없는 연속적 과정이어서 어떤 경계선을 긋는 것은 임의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생명과 존엄성의 보호는 배아 발달의 시작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 어쨌든 우리는 인간이 수정과 동시에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생존능력에 연관시켜 배아가 모체 내에 있는 경우에만 성장 발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체 밖에 있는 배아는 인간생명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같은 배아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 있는 배아는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단순한 세포덩어리이고 모체 내에 있을 경우에만 인간이라는 생각은 인간의 정의를 위치나 환경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실적 여건상 착상되어 성장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배아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타인의 선택에 따라 자궁에 이식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 배아의 생명이 보호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한다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오히려 모체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잔여배아가 모체에 이식된 배아에 비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배아가 자궁에 착상되기 전 단계에서는 제대로 착상에 성공하여 성장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아직 인간생명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착상이 생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영양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발생의 한 단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인간생명체의 발생 과정에 있어서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을 가지고,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예컨대 태아는 태어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생아는 아직 성인과 같은 신체능력과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아직 인간 생명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배아는 자궁에 착상되어 영양을 공급받아야 성장 가능한 의존적 존재이지만, 원래 인간은 그 누구나 영양섭취와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의존적 존재이다. 만일 신생아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서 신생아는 스스로 먹이를 마련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인간이 아니라고 하거나 일시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나 인공급식을 받는 환자도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등 열등한 능력과 조건을 가진 인간에 대하여 인간임을 부정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인간은 사는 동안 상당한 발달 과정을 밟는다.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극히 미세한 기원에서 발생하여 단절 없이 연속성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성체로 되어 늙어서는 다시 활동능력을 잃게 되어 결국은 죽는다. 완성된 인간에로의 발달 도상에 있는 개별 존재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근본지위가 파생되는 것은 아니다.

가톨릭교회는 만일 수정 순간부터 배아가 인간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인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간 생명의 출발 시점에 이미 유전적 개체성이 결정되어 있으며, 한 인간 삶의 모험은 수정 직후부터 바로 시작된다.

교회는 수태의 결과가 비록 하나의 인간인지 아닌지 결론지을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도 감히 살인을 감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중죄임을 천명한다. 잡목 속에 움직이는 것이 동물인지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사냥꾼이 총을 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만일 배아가 인격체라면 그것은 생명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 만일 인격체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것은 인격체에 이르는 통로일 것이다. 과거에 수정란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출발 순간부터 개체로서 인격을 갖는다는 주장은 어떤 중요한 질적 변화를 인정할 만큼 중요한 초기 발생의 단계가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착상, 태동, 출생 같은 조짐들도 어떤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단계들은 아니다.

무고한 인간생명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배아의 생명권과 연결된다. 그러한 생명권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간주되는데,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 생명은 최고의 가치이며,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신성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윤리학부 교수

전쟁하시는 하느님

〈십계〉라는 영화를 본 건 아마 40년쯤 전, 내가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던 것 같다. 모세 역의 찰톤 헤스톤, 람세스 역의 율 브린너 등 이미 고인이 된 주인공 배우들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꿈속의 왕자들로 각인되어 있을 만큼 인상적인 영화였다. 그러나 이집트의 가장 아름다운 왕비였다는 네페르타리 역의 배우는, 그 영화에서의 역할 때문인지, 썩 매력적인 인물로 기억나지는 않는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만큼이나 영화의 장면들도 인상적이었다.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장면과 홍해(갈대바다)를 건널 때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갈리며 그 양쪽 물 벽 사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는 장면 등에서 찬탄이 절로 나왔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는 뭔지 모를 불편함이 있었다. 나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인지 이집트인들이 파라오의 고집으로 인해 그렇게 많은 재앙들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의구심이 일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한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었다. 특히 파라오의 추격 명령에 따라 멋모르고 그 길로 들어섰다가 말과 함께 수장된 이집트 병사들을 볼 땐 더욱 그러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편드시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왜 그토록 모질게 대하시는지, 고집 센 파라오만 벌주면 될 텐데, 이집트 사람들까지 왜 그렇게 죽이셨는지 하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느님이 그렇게 편협하신 분이신지, 이런 분을 섬겨도 될는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 영화의 근간이 되는 성경구절들 중 가장 오래된 구절은 탈출기 15장의 '미르얌의 노래'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네."(탈출 15,21)

말과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신 하느님, 오싹하고 무섭다. 이 오싹한 느낌은, 최근 우리 민족 전체의 마음을 멍들게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말한 서울의 한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설교에서도 들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5월 11일 주일예배에서 〈믿음의 3요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던 중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기자주)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오마이 뉴스〉 2014.5.28.)

이 설교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회개를 위해 하느님이 일부러 배를 침몰시켜 어린 학생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이다. 참 황당하고 또 당혹스럽다.

탈출기 15장의 미르얌의 노래처럼 구약성경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사(戰士)로서의 하느님 모습이 자주 보인다. 이런 전사로서의 하느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사상적 배경으로 신명기 20장 16-18절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이는 헤렘(전멸)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저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모조리 전멸시켜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온갖 역겨운 짓을 너희도 하라고 가르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니. 이웃 민족을 모조리 전멸시키라니, 정말 성경 말씀 맞아?!라는 생각이 든다.

이 헤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2세기 중엽의 그리스도교 이단으로 알려진 마르치온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마르치온은, 구약의 하느님은 보복하는 잔인한 하느님인 반면 신약의 하느님은 자애로운 사랑의 하느님이라며, 구약성경은 인정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이슬람의 지하드와 같은 뜻의 '성전(聖戰)'이라는 표현은 없다. 대신 '야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야훼 하느님이 전사로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라 사건 이후에 해석된 역사임을 이해해야 위의 목사나 마르치온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전해 주는 사건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후대에 글로 기록되었다. 게다가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방대한 분량의 책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단편적으

>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 야훼의 전쟁은 일반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 인간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반전(反戰) 사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로 기록된 것이었다. 구약성경이 1차적으로 집대성된 시기는 바빌론 유배 시대다. 유배지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패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자기네 역사를 재정리했다. 그중 가장 많은 작업을 한 이들이 신명기계 역사가다.

야훼의 전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원수에 대한 전멸 요구일 것이다. 하지만 이 전멸 요구는 신명기계 역사가들의 사상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들은 말과 마차로 표상되는, 비신앙적이며 힘의 논리만을 따르는, 가나안의 바알주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반성했다. 사실 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헤렘(전멸)이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고 본다.

이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알주의에 물들게 되었고, 자신들의 순수성을 잃고 패망하여 바빌론에 유배되었다는 뼈저린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가들은 이런 내용들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야훼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한 꺼풀 벗겨서 파악해야 한다. 야훼의 전쟁은 무엇보다도 약자를 보호하는 방어전이었다. 야훼의 전쟁은 긴박하고도 희망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약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임과 동시에, 그 부르짖는 약자를 말과 마차(기병)로 상징되는 강대한 힘(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킨 사건이다.

또한 야훼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과 그 양상이 전혀 다르다. 예컨대, 야훼 하느님의 군대는 그 군대의 수를 적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줄인다거나(판관 6,35), 또는 이스라엘은 단지 '주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판관 7,18)라고 부르짖는 일만을 할 뿐 실전 행위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거나(탈출 14,14),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히 비난하고 거부한다(시편 68,31). 홍해(갈대 바다) 앞에서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받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야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단지,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탈출 14,14)라는 말씀뿐이었던 것도 그 예 중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야훼의 전쟁은 일반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반전(反戰) 사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송향숙 그레고리아 가톨릭출판사 편집국장

가톨릭노동장년회 역사의 50년, 희망의 50년

서순희 빅토리아 가톨릭노동장년회 서울대교구연합회 회장

올 5월 성모성월에 가톨릭노동장년회(가노장)가 성모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총으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함께한 회원들을 비롯하여 선배, 동반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신 교회 관계자들, 특히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님께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싱가포르와 일본의 회원들과 신부님들, 그리고 가노장 국제본부 스페인 여자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많은 회원들과 선배들은 준비 기간에 함께 나서 행사기금을 마련했으며 축하공연을 보여 주기 위해 많은 회원들이 부채춤과 사물놀이, 기타 연주와 노래, 피아노 반주와 댄스 등을 연습했습니다. 또한 행사 당일 사례 발표를 통해 다양한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기쁨을 같이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 동반 신부님들도 참석해 축하해 주시고 주교님도 기념미사를 집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노장은 초창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장 먼저 주택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가노장은 노동자 부부들을 중심으로 그들 삶에 복음의 희망과 기쁨을 주고, 노동자도 모두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을 드높이며, 직장과 가정, 이웃들과 함께 평신도 사도로서 복음화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유혹과 나태함, 운동방향의 불

일치, 조직의 불화 등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원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찾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5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큰 업적은 없었지만 회원 한 분 한 분이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복음적 가치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느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가 좀 더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하느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가 50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위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공동체 역사가 길어서 활동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지난 50주년 기념미사 때 하신 유경촌 주교님의 강론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가노장의 나아갈 방향을 찾아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참석자들이 젊다. 어려움 속에서도 선배들과 현역들이 합심해 행사를 준비해온 데 대해 축하와 감사드린다. 박성종 신부님께서 가노청을 끝낸 사람들이 사도직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가노장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오랫동안 증거와 봉사, 수행과 본격적인 사회참여를 해온 점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

모든 노동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걸림돌을 뛰어넘으며 시련을 견뎌내고 정부와 싸워온 점도 장하다. 열악한 노동현장에서도 사회의 민주화에 투신해 온 것도 이 땅을 민주화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제 일상과 자녀, 가정에 그리스도 정신을 심으려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갈 길은 험난하고 멀다. 그래서 다양하고 폭넓은 연대가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의 현실은 많이 좋아졌으나 노동자의 존엄은 오히려 퇴보했다. 노동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오늘 50주년 기념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가노장의 핵심가치인 노동의 신성함을 드높이는 것,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 모두가 가노장이 해야 할 일이다.

아직 복음화의 길은 먼 것 같다."

창립 30돌 맞아
생명운동 힘차게 펼칠 것

대담 · 정리: 김세진 편집위원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가톨릭약사회는 여러 가지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라파엘 의료원 봉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많은 사람이 가족 및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황금 같은 주일에 수많은 봉사자들께서 자신의 주일은 반납한 채 분주하게 의료봉사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가톨릭약사회의 임원이자 라파엘의료원 약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경자 자매님을 만났다.

그분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더니 "환자들이 아주 많죠." 하시며 조용한 장소로 안내했다. 우선 그분은 가톨릭약사회와 라파엘의료원의 관계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가톨릭약사회가 라파엘의료원과 손을 잡은 지는 17년이 다 되어갑니다. 원래 라파엘클리닉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봉사 단체였죠. 처음에는 소규모 봉사활동 위주로 진행되어 왔지만 그게 널리 알려지고 사업도 외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까지 대상이 확대돼 지금 보는 것처럼 다양한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매월 두 번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낮에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넷째 주는 둘째 주에 비해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 진료일이에요. 오늘이 마침 그날이라 정신이 없네요."

시설이 굉장히 좋다는 칭찬의 말에 이야기를 이어간다.

"원래 제대로 갖추어진 클리닉 건물도 없어서 동성고등학교 강당을 잠시 빌려서 주말에 의료봉사를 했어요. 상당히 열악했죠. 서울대교구와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아 점차 개선되고 있죠. 서울대교구가 무상으로 마련해 준 건물을 후원자들의 성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바로 어제 이곳 한성대입구역 앞의 라파엘클리닉 건물의 완공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총 5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1층 조제실, 2~4층 과별 진료실과 사무실, 5층 소규모 성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금 있다가 한번 둘러보세요. 특히 5층 성전에는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조각상도 있어요."

조금 전 의료봉사 현장을 찾아온 가수 이문세 씨를 봤다고 했더니 미소를 지으신다.

"가수 이문세 씨는 2여 년 전부터 후원을 해오셨어요. 특히 그분은 강원도 봉평 소재 허브나라 농원에서 진행된 라파엘클리닉돕기 숲속음악회 수익금 전액을 후원해 주시기도 했죠.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등 기업과 단체의 후원뿐만 아니라 작은 음악회나 사진 전시 등 재능기부 형식으로 후원하시는 분도 많아요."

봉사자들이 꽤 많이 보여 누구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예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라파엘클리닉이 널리 알려지면서 주말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아져 사무실을 통해 어느 정도 선발과정을 거치기도 해요. 그 밖의 정기적인 후원에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죠."

오후 진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위해 기다려주신 약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후 봉사현장에서 이강추 가톨릭약사회 회장님을 뵐 수 있었다. 자리를 옮겨서 그분은 가톨릭약사회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

"얼마 전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었어요. 2013년 6월 9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보건사목위원장이시며 군종교구장이신 유수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님을 모시고 기념미사를 올리고 특강을 들었죠. 가톨릭약사회 임원을 비롯해 역대회장, 인천교구와 수원교구 약사회, 교수협의회, 병원약사협의회, 공직약사협의회와 일반회원 등 약 60명이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 주셨어요. 이날은 가톨릭약사회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전국사도직 단체로 인준 받은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해서 더욱 뜻 깊은 행사였어요.

가톨릭약사회의 역사는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2년 10월 27일 열렸던 '아시아 약학회의(FAPA)' 준비위원 중 교우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20명 정도가 모였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가톨릭약사회를 창설하자는 의견이 나와 시작하게 됐지요. 그동안은 교구별로 가톨릭약사회가 설립되어 따로 운영되어 왔죠. 보건의료 분야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가 전국 사도직단체로 인준을 받은 것과 달리 가톨릭약사회는 전국 사도직단체로 인준을 받지 못했어요.

이후 1999년 의약분업제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약회사는 물론이고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직접 투약하는 일선 약국의 약사들은 주변의 병 · 의원 의사들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약국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약국을 개설한 약사들 중심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던 가톨릭약사회 운영도 위협을 받을 상황을 맞았습니다.

2004년 9월에는 가톨릭의사협회, 가톨릭간호사협회, 가톨릭병원협회가 한국가톨릭의료협회를 조직하는 일에 가톨릭약사회도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아 임시 총회를 열었고 그때부터 제가 가톨릭약사회 회장으로 봉사하게 되었죠.

2006년 7월에는 가톨릭의료협회가 주관하는 몽골 의료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매년 3명 정도가 봉사활동에 나서고 약사들이 진출한 직종이 다양한 점에 착안하여 기존 가톨릭약사회 조직을 확대하여 직종별협의회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2008년 6월에는 '가톨릭약사회 교수협의회'를, 2008년 12월에는 '가톨릭약사회 병원약사협의회'를, 2009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교우 약사들을 중심으로 '가톨릭약사회 공직약사협의회'를 설립했어요.

2012년 전국사도직단체 인준 신청을 주교회의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고 여러 단계를 거쳐 그 결실이 이제야 이루어진 거예요. 작년 3월에는 한국가톨릭약사회가 한국평협 명단에도 등재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네요. 30주년을 보낸 한국가톨릭약사회는 이제 정체성이 더욱 뚜렷해졌고, 전국의 교구약사회와 함께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로워요. 앞으로 가톨릭약사회는 흩어진 회원들을 더욱 단단하게 규합하도록 힘쓰고 새로운 회원 발굴을 통한 젊은 피 수혈로 조직을 쇄신하고, 교회 내 생명 및 환경보전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피정 등 다양한 신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에요."

이경언 바오로 – 영웅적인 순결과 청빈의 덕

피조물을 위해 조물주를 배반할 수 없다
온몸이 입술로 변한들 어떻게 주님의 찬미를 다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경언 바오로(1790~1827)는 이윤하의 차남이며 권철신(암브로시오)의 생질입니다. 그리고 동정부부 순교로 유명한 이순이(누갈다)의 남동생이요,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자 이경도의 동생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천주교 신자 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았으나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고, 신유박해 때 형과 누나가 순교한 뒤 집안이 완전히 파산하였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와 형수와 셋이서 서울에서 몹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성서를 필사하고 성화를 그려 교우들에게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해 가다가 중인 가문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매우 성격이 고약해 일생 동안 아내와 사이에서 수많은 풍파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련을 모범적인 인내로 참아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1815년에 어머니와 형수를 충청도 연풍으로 낙향시키고 그는 서울에서 아내의 성화와 가난 속에 살면서도 밤낮으로 교우들을 가르치고 외교인의 전교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늘 명랑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보였으며 끊임없이 성경읽기에 열중하며 교우들 집을 순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곤궁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토록 곤궁한 형편에서도 북경으로 한국교회가 파견하는 밀사들의 여비를 마련하는 일에 가장 많은 힘을 쓴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경언 바오로는 항상 스스로 성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자신의 언행이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제발 일러 달라."고 부탁하는 데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지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벗 현석문 가롤로에게 보낸 편지 중에 "우리의 우의는 보통 우정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네. 자네가 아니었더라면 내 결점을 들어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걸세.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보배였던지 참으로 알 수 있게 되네." 하며 자신의 결점을 지적해 주는 벗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고 보배로 생각하며 자신을 진지하게 수련해 나갔습니다.

그가 기도나 묵상에 잠기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몰두하였으며 자신을 겸허하게 낮

> “안 보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까? 사또께서는 이 감영을 지은 일꾼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오관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는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 같은 것밖에는 모르고 원리나 이치나 비물질적인 것은 모두 정신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어 대하니 누구나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권고를 듣고는 모른 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때 북경의 주교께서 남녀 회장 몇 사람을 선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장들을 양성하는 데 전력 매진하여 매월 첫째 주일에 대상자들을 집에 불러 모아 그들에게 묵상 자료를 주며 참된 신심을 가지도록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경언 바오로의 성덕과 영성을 알아볼 만한 일화가 있습니다. 몹쓸 아내의 성화와 지극한 곤궁 속에 살고 있던 한여름 막바지 어느 날 한 노파가 이경언 바오로의 집으로 찾아와 무슨 서장으로 보이는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돈 많은 젊은 과부가 자기의 소원을 말하며 이경언에게 첩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청하는 편지였습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양반은 첩실을 둘 수 있었고 이경언은 왕손의 후예로 몹시 가난하고 또 아내로 인해 불행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은 크나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매파를 사정없이 내쫓았습니다. 매파가 실망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자 이경언은 매섭게 책망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이경언 바오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나 어쩌면 그 불쌍한 젊은 과부에게 신앙을 갖도록 가르쳐 입교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파의 말을 듣는 척 하고 늙은 하인을 따라갔습니다. 우선 노파의 집으로 갔는데 이 노파가 그 젊은 과부의 유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되자 노파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어떤 집으로 안내하더니 깊숙한 곳 안채에 있는 방으로 데려다 놓고 물러갔습니다. 조금 뒤에 과부는 예의 바르게 소복을 차려 입고 등잔을 밝혀 들고 들어와 이경언 바오로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경언은 평온한 마음으로 차분하고 진지하게 천주교의 진리를 설명해 갔습니다. 처음부터 교리 이야기만 한 그는 다음날에도 구원의 신비에 관한 교리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젊은 부자인 과부는 유모를 시켜 값진 물건들을 여러 차례 이경언 바오로에게 보냈는데 그는 받기를 거절하여 유모의 집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경언 바오로의 깨끗한 열정은 과부에게도 전해져 그녀가 주요 기도문을 배우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과부가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은 이경언은 시간을 틈타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교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대세를 주었는데 과부는 사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경언 바오로는 늙은 유모에게 그집에 그동안 보관했던 값진 물건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니 노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언 바오로는 그 물건들을 모두 팔아서 그간 과부에게서 꾸어 썼던 돈을 갚는 것이라는 핑계로 물건값을 모두 과부의 상속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영웅적인 순결과 청빈의 덕은 빛났습니다.

그는 늘 마음속에 순교하고자 하는 원의를 품고 있어 즐겨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천주교가 퍼지게 하려면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러던 그는 1827년 전라 지역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가 필사한 교리책과 성경, 그가 그린 상본이 발각되어 전라 감영에서 파견한 포졸들에 의해 그해 4월 21일 서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관헌들 앞에 선 그는 형님과 누님의 영광스러운 발자취를 충실히 따라 그들처럼 신앙을 용감히 고백하여 모든 신앙인들에게 찬탄을 받을 만한 모범을 남겼습니다. 그는 1827년 4월 28일 전라 감영으로 압송된 후 6월 27일 옥고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36세의 나이로 옥사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옥중생활을 하면서 포졸의 감시를 피해 가며 틈틈이 쓴 옥중수기를 남겼는데 그 필사본이 1965년 한 순교자의 집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누갈다 초남이 일기 남매’라는 제목의 이 사본에는 이경언의 형 이경도와 누이 이순이 누갈다의 편지와 함께 이경언 자신의 옥중수기가 ‘정해년 이 바오로 일기’란 표제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옥중에서 ‘어머니와 다른 식구들에게’ 5월 14일자로 보낸 편지, 그 이튿날인 5월 15일자로 아내에게 따로 쓴 편지 ‘정희의 어머니에게’, 명도회 회원이었던 그가 회장과 회원들에게 보내는 옥중편지도 남겨 교회의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옥고와 심문에 응답한 것을 자신의 옥중수기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 그런데 도무지 예기치 않고 있던 4월 21일 초저녁에 김성집과 서울 및 지방 포졸 10여 명이 나타나 나를 붙잡아 포청으로 연행하였습니다. … 이리하여 우리는 해질 무렵에 한강을 건넜습니다. 나는 붙잡힐 때부터 천 가지 근심 걱정에 시달려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하였습니다. … 이 길을 떠나면서 나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걷기를 두려워한단 말인가! 나는 예수를 한발 한발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니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감사 앞에 불려 나갔습니다. 감사는 영장을 옆에 거느리고 앉아 내게 몇 마디 물어 보았고 나는 또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차림새가 진영보다는 십 배나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래 너는 천주교를 버리지 않기로 작정했단 말이냐?”

“버릴 수 없습니다.”

“네가 천주를 보았느냐?”

"안 보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까? 사또께서는 이 감영을 지은 일꾼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오관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는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 같은 것밖에는 모르고 원리나 이치나 비물질적인 것은 모두 정신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네가 배운 것을 모두 말해 보아라." 그는 옥중에서 교리 설명을 관헌에게 공개적으로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님 승리는 오묘할 따름입니다. 그는 계속 적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전주 고산 곡성 동복 그리고 정읍 관장들이 죽 둘러 앉아 … 그러니까 한 관장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의 모친이 살아 계시고 처자도 있다는 데 지금이라도 한 마디만 하면 여기서 풀려나가 너의 모친과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니 오죽 기쁜 일이겠느냐?"

"어머니를 다시 만나서 살려면 배교하란 말이지요. 그러나 천주님은 만인의 대왕이시고 아버지시라 제 어머니도 그분에게 조성함을 받으셨으니 어찌 피조물을 위해 조물주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시 옥으로 끌려 왔습니다.

그가 끝내 배교를 거절하고 교리를 설명하자 형벌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 당한 바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더 묻지 않고 형틀에 올렸습니다. 아아! 나는 도무지 열정도 없고 체질도 약합니다 그러나 비상한 특은으로 이 형틀 위에 놓여 있는 동안 구세주의 매 맞으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20여 차례 매를 맞고 나서 나는 정신이 아득하여 지는 것을 깨닫고 나는 천주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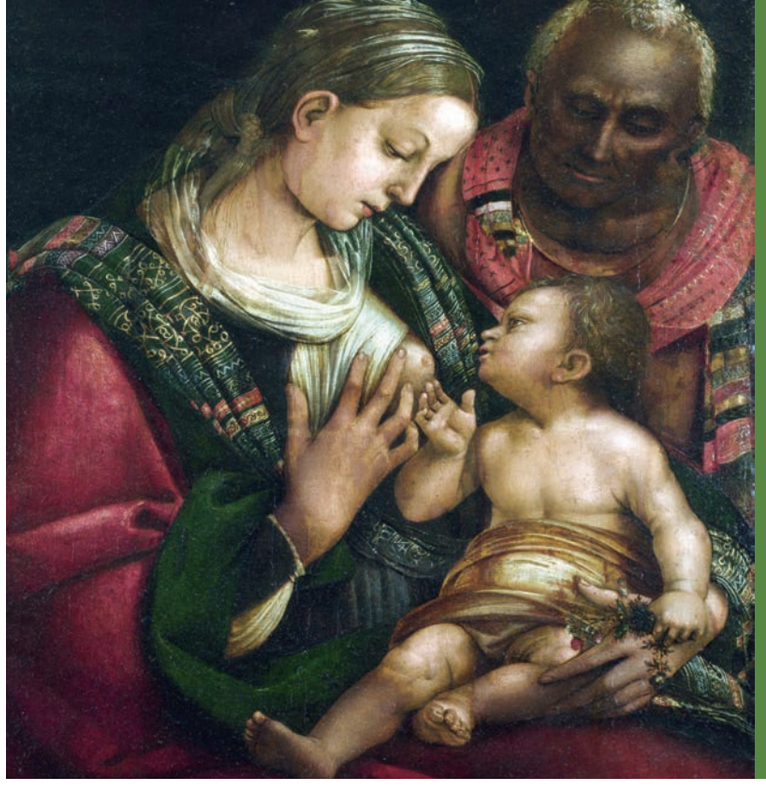
"두 사람에게 부축을 받으며 걸어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 가운데 친절하게 생긴 젊은이가 나를 업고 간수장은 나의 머리를 받쳐들고 하여 감방까지 왔습니다. 눈을 뜨니 다리가 온통 해어지고 사방에서 피가 흐르거나 혹은 상처 위에 피가 엉겨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아! 나보다 더 튼튼하지도 아니하셨을 예수께서는 올리브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잠이 깨었을 때에는 다리가 더 가볍고 훨씬 덜 아팠습니다. 한 젊은 교우가 내 옆에서 모든 심부름을 해주고 쉬지 않고 보살펴 주니 이 또한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는 도와주는 교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는 이렇게 동정과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고 정신을 들게 하느라고 애들을 쓰는군요."

"이건 참 과분한 일입니다 모든 특은이 나 한 사람 위에만 무더기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온몸이 입술로 변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천주의 찬미를 넉넉히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오호라! 이런 분이 지금 복자로 시복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사도요한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



가족과 가정공동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가장 먼저 만나는 타인은 가족이며,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는 가정공동체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족과 가정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우선적으로 여겨진 까닭이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기에 앞서 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 『대학』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가 오늘도 새롭다.

하나의 가정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성인 남녀가 혼인의례로 결합하여야 한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단군신화의 웅녀(熊女)는 어두운 동굴에서 삼칠일간 쑥과 마늘만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고 금기하는 시련을 이겨낸 뒤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 주몽신화의 유화(柳花) 역시 어두운 방에 일정 기간 격리되는 한편, 새의 부리처럼 세 자나 늘어난 입술을 가위로 세 번 자르는 시련을 겪은 후 해모수와의 사이에서 주몽을 낳았다. 공히 신모(神母)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무적(巫的) 시련을 수반한 통과의례를 치렀던 것이다. 성인의례나 혼인의례에 수반되는 시련은 마한의 젊은이들이 등가죽에 끈을 꿰어 큰 나무에 붙들어 매고 소리 지르며 잡아당기는 행위(『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무적 시련을 이겨냈을 때, 소년 소녀는 성인으로 재생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 『사례편람』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열다섯 살이 된 남자는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관례(冠禮)를, 여자는 쪽을 찌어 비녀를 꽂는 계례(笄禮)를 치렀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고, 자긍심과 자존감을 드높이는 의례였다.

성인이 된 처녀 총각은 혼인의례를 통해 사랑으로 맺어진 완전한 상호보완적 존재이자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났다. 오죽하면 혼인하지 못하고 죽은 손말명(처녀귀신)이나 몽달귀(총각귀신)를 가장 한이 맺힌 귀신이라 하였을까. 지금도 혼인을 하지 못하고 죽은 혼백을 위로하기 위하여 영혼결혼식을 올려주고 있지 않은가. 옛

>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세 가지 있으니 그것들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다. 형제들끼리 일치하고 이웃과 우정을 나누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집회 25,1)

풍속을 보면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혼인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사를 치르고자 하는 집념이 얼마나 컸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민요와 가사로 전승되어오는 ‘노처녀가’의 내용이 절절하다.

‘어떤 처녀는 팔자 좋아 / 이십도 되기 전에 시집간다 / 남녀자손 시집장가 / 떳떳한 일이건만 / 이내팔자 기험하여 / 사십까지 처녀로구나 / 앞집 김동이도 상처하고 / 뒷집 이동이도 기처로다.’

마음이 급한 노처녀는 아내가 죽은 남자[喪妻]든, 아내를 버린 남자[棄妻]든 가리지 않겠다고 스스럼없이 토로하고 있다. 혼인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여과 없이 드러난다.

그렇게 혼인에 성공한 여인은 암환자가 겪는 아픔보다 한 단계 위라는 산고를 이겨내고 마침내 새 생명을 낳는 기쁨을 맛보았다. 자손이 귀한 가정에서는 우뚝 솟은 기자석(祈子石) 앞에서 기도하였고, 그도 안 되면 석상의 코라도 깨어다 갈아 마시기까지 하며 출산하고자 하였다. 아이를 낳으면 삼칠일 동안 삼신할머니에게 흰 쌀밥과 미역국을 올렸다. 아울러 대문에는 숯과 고추와 솔가지 등을 매단 금줄을 자랑스럽게 내걸어 자식의 탄생을 온 동네에 알리고, 새 생명에 대한 친지와 이웃의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켰다.

사정이 이러하였으니 혼인을 통해 가정을 꾸린 부부가 어찌 다정한 단짝이 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사랑으로써 새 가족이 된 자녀들이 어찌 소중한 분신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부모와 자식은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로서 자애와 효도로 부자유친의 도리를 지키고, 형제와 자매들은 그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로서 서로 돕고 기대어 우애를 나누며 행복을 누렸다.

오늘날 우리의 가족과 가정공동체 현실은 어떠한가. 성인의례, 혼인의례, 출산의례는 상업화의 물결을 타고 겉치레 행사가 된 지 오래다. 무적 시련을 수반한 - 물론 후대에는 시련이 상징화되었지만 - 의례를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혼인과 출산은 줄고, 이혼과 낙태와 자살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2013.9 - 2014.2) 혼인은 164,028건인 반면, 이혼은 58,095건으로 이혼율이 무려 35.4%에 달하고 있다. 평균초혼연령은 남자가 32.2세이고, 여자가 29.6세로 점차 늦어지는 추세이다. 날이 갈수록 혼인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다. 혼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꾸렸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추세이다. 2013년의 경우 한 여자가 가임기간(15 - 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19명에 불과하다.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 가임여성 1천명 중 29.3명이 낙태 경험이 있어 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해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살률 역시 놀랍기 그지없다. 우리나라 통계청 보고서의 2002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면, 사망원인 순위 중 자살이 8위에서 4위로 급상승하였다. 자살 사망자 수를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인구 10만 명당 17.9명이었던 것이 28.1명으로 무려 57.2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이 12.5명이라는 사실에서 그 심각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주목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이 50대에 비해 세 배나 된다. 최근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강력범죄의 70%가 이혼, 가정폭력, 부모의 무관심과 과잉보호, 경제적 빈곤 등 가정의 위기로부터 발생하는 ‘홈 메이드 크리미널’이라는 보고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오늘날 가족과 가정공동체 안에서 야기되는 혼인율, 이혼율, 출산율, 낙태율, 자살률 등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생명의 문화가 아닌 죽음의 문화에 경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자는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니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5-6)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대한 말씀, 또한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라(에페 6,4)는 자녀교육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자식들은 생명의 근원인 어버이에게 효도하라는 제4 계명이 무색하다.

‘혼인제도 자체와 부부 사랑은 그 본질적 특성으로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며, 그로써 마치 절정에 이르러 월계관을 쓰는 것과 같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52항)는 가르침이 새롭다.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로 이루어진 가정공동체는 참된 인간공동체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 가정은 창조주의 협력자인 부부가 사랑으로써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지성소이자 자녀를 양육하는 못자리인 것이다. 오늘날 ‘대박’이라는 말로 대체되어 버린 ‘다복’(多福)은 원래 자녀가 많은 가정을 지칭할 때 쓰던 말 아니었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과 생명으로 이루어진 가정공동체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 위에 세워진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친교에서 태어난다.’(〈사목헌장〉 48항)는 가르침에 눈을 돌려야 한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가정공동체의 구성원은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존중해야 한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타고난 권리를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러한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738항)는 가르침이 따끔하다. 가족 간 사랑의 친교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생명으로 맺어진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성가정을 닮은 사랑의 가정공동체를 이루는 핵이 아닐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세 가지 있으니 그것들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다. 형제들끼리 일치하고 이웃과 우정을 나누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집회 25,1)

김문태 힐라리오 가톨릭대 ELP학부 교수

"정성을 다하면 세상이 변한다"

드라마 | 2014.4.30 | 135분
한국 | 15세 관람가 | 감독 이재규

죄인지자 불위군왕(罪人之者 不爲君王). 죄인의 자식은 군왕이 될 수 없다. 왕조의 역사에서 왕권은 무소불위이나 '왕의 사람들'이 없으면 그 존립은 바람 앞에 등불이다. '왕의 사람들'은 그들의 왕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혈육이나 인륜지정(人倫之情)을 무참히 거스르기도 한다. *왕조사에서 거듭되는 찬탈의 역사 혹은 사화(史禍)의 반복은 왕과 '왕의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거대한 '힘의 이동'이다. 그 힘을 위해 때로 자식도, 형제도, 조카도, 할미도 '쳐내야' 한다.*

그 비극적인 숙명을 안게 된 왕 가운데 영조가 있다. 나이 마흔둘에 본 귀한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게 한 사건 이후 14년을 더 산 영조에게 그 세월은 어떠했을까? '자식을 잡아먹은' 아비의 삶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영조는 자신이 죽게 한 아들의 아들(세손 이산)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 세월을 살아냈는지도 모르겠다.

조선왕조사에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왕들 중 하나인 정조임금 이산은 할아버지 영조의 죄책감과 가호에 의지하여 왕이 될 수 있었다. 세손 시절부터 '죄인의 아들'로서 배척과 경계의 대상이었고, 여러 차례 생명의 안위까지 위협당하는 살얼음판과도 같은 궐 안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다지고 또 다졌다. "두렵고 불안하여 차라리 살고 싶지 않았다."고 일기에 토로할 만큼 힘든 그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여 1776년 이산은 조선 제22대 왕으로 등극한다. 이산 정조는 즉위식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당당히 선포함으로써 '죄인지자 불위군왕'을 주창하던 노론벽파를 충격에 빠뜨렸다.

'역린'(이재규 감독)은 정조 즉위 1년(1777년)의 '정유역변'에 대한 영화로서,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던 하루 동안의 이야기이다. 정유역변은 1777년 7월 28일 존현각 지붕을 통하여 누군가가 침입하려 한 흔적이 있었고, 이것이 일개 도둑의 소행이 아니라 정조에 의해 귀양을 간 홍지해(사도세자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홍계희의 아들)의 아들 홍상범이 궁의 호위무관, 나인까지 포섭하여 정조를 시해하고 은전군 이찬을 옹립하려 한 역모사건으로 밝혀진다. 정유역변은 '3대 모역사건'으

역린

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영화 '역린'은 이날의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한다.

보통 영화가 역사를 다루는 방식은 역사적 팩트와 작가의 상상력을 결합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른바 팩션(fact+fiction)이다. '역린' 역시 팩션 사극이다. 내시 상책(정재영), 살수 을수(조정석), 살막을 운영하는 광백(조재현) 등은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인물들이다. 허구의 인물을 역사적 사건에 배치하고 개입하게 함으로써 작가와 감독은 박제된 과거를 생생한 현재로 풀어낸다.

그러나 '역린'은 정(靜)과 동(動)의 리듬이 아쉬운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는 시종 무언가 억압된 분위기로 끌어간다. 이는 정조를 연기한 배우 현빈의 표정이나 보이스에서 더 두드러진다. 왕이라고는 하나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인 자의 극도의 신중함과 긴장이 묻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연출까지 억압적일 필요는 없었다. '용의 비늘', 즉 왕의 분노를 의미하는 역린의 폭발성이 더해졌다면, 우리는 진정한 카리스마를 갖춘 왕의 등장을 목격했을 것이다. 다행히 존현각 습격 장면은 속도감 있는 스펙터클을 시현함으로써 영화의 역동성을 뒷받침해 주기는 하였다. 특히 공간(존현각) 안에서 냉정한 표정으로 난입자들에게 화살을 날리는 정조의 모습은 영화 오프닝에서 이른바 '성난' 등근육을 보여주던 배우 현빈의 이미지와 함께 인상적으로 각인된다.

'역린'은 인내에 관한 영화이다. 즉위한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비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이내 나섰다면 복수는커녕 그가 먼저 당했을 것이다. 영화에서 정조는 아비의 원수 구선복(송영창)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편으로 만든다. '아비의 원수와는 한 하늘을 이지 않는 법'이라던 생각을 버리고, '심장과 뼈가 모두 떨릴 만큼' 끔찍한 그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물론 역사에서 구선복은 정조10년에 역모사건으로 죽임을 당한다). 정순왕후에게도 마찬가지. 자신을 제거하려는 '할마마마'의 의지와 소행을 알고 있음에도 정조는 이를 덮어둔다. 그로써 어머니 혜경궁을 살리고, 피바람의 참변과 비극을 피해 나간다.

'역린'은 정성과 감동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에서는 정조의 입을 빌려 『중용』 23장의 한 대목을 들려준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겪은 고통과 신산이 클수록 원망과 절망과 미움도 더 커지는 게 상례다. 그러나 그 부정적 마음은 아무도, 그 어떤 세상도 변화시킬 수 없다. 복수와 미움에서 한 걸음 벗어나 이해하고 연민하고 나아가 정성을 다하면 나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것이 '역린'의 궁극적 메시지이고,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몸소 실천하신 사랑의 길일 것이다.

조혜정 가타리나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

라파엘로의 '고기잡이 기적'

The Miraculous Draught of Fishes

1515–1516년경. 캔버스 위에 고정된 종이에 목탄 드로잉과 채색. 319 x 399cm.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 호수로 표현된 막막한 우리 인생의 행로, 그 여정에서 나의 마음에 새긴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과연 어디인지를 새겨 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칼날을 더욱 거세게 숫돌질해 보라고 권유하는 화가의 의도가 정말 새롭게 보인다.

그림에는 큰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갓 잡은 물고기로 가득 찬 두 척의 배를 보니 고기잡이에 큰 성과를 거둔 모양이다. 배에는 각각 세 사람씩 타고 있는데, 오른쪽 배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고기가 꽉 차서 올라오는 그물을 당기는데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왼편의 배에는 사정이 다르다. 한 사람은 고기잡이에 전혀 관심 없는 무상(無常)한 모습이고, 두 사람 역시 고기잡이와는 무관한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복(俯伏)한 모습이다. 아마도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성서의 말씀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부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니 뜻밖에도 그물에 고기가 넘쳐났다는 〈고기잡이 기적〉을 그린 것으로,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Raffaello Sanzio. 1483-1520)의 작품이다.

그림 맨 왼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분은 지금 꽉 찬 고기 때문에 가라앉을 것 같은 뱃전에 앉아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마도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 아닐까? 그 말씀 앞에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로 그 말씀을 거두어 달라는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뭍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루카 5,8-11)

그러니 오른편의 배의 인물들은 배를 부리는 제베대오와 그물을 들어 올리는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으로, 이들도 시몬 베드로 형제와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른 사람들이다.

그림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척의 배에 나누어 탄 6명의 인물들 외에, 하늘에는 새들이 날고 아래 근경에는 두루미와 두 동강 난 가재가 놓여 있다.

그리고 원경 멀리에는 도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여러 그룹을 짓고 있다. 이들 그룹은 서로에게 참다운 이웃으로 보이지 않는다. 화해와 용서, 사랑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에게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외면하거나,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른바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떠도는 방황하는 운명의 자들, 즉 이방인들인 셈이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모습 자체가 불분명하고 흐리다.

이런 죄의 삶과 대비를 이루는 것이 배와 호수 주변의 새들을 비롯한 동물들이다. 이 동물들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창조물 아닌가? 그렇기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생명과 삶 자체가 온 누리에 있다는 것, 그렇기에 삶의 진정한 가치는 공존이며 나눔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에 죄의 길과 상반된 이미지들인 것이다. 더욱이 머리가 빨간 두루미들은 붉은 모자를 쓴 교황의 품위와 연관이 있어 교황권을 의미한다. 반면 가재는 뒤로 도망치는 걸음을 걷는다.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나약한 신앙의 상징이다. 그러니 두루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인물들 앞에 어엿하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들이 신앙의 탑을 굳건하게 세우고 교회의 반석이 될 것임을 예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그러니 그물 속 물고기는 주님과 제자들에 의해 구원되는 인간들, 곧 신앙의 대열에 참가할 사람들일 것이다. 더불어 물고기가 '동정'과 '경건'의 상징이라는 점은 감안한다면, 구원된 이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덕목이 무엇인지가 뚜렷해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통해 진정 구원하고자 하시는 대상은 어디에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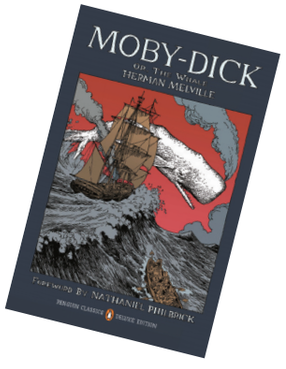
주님 상대편에 가장 멀리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아직 하느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총을 접하지 못한 채 죽음의 길에 들어선 자들 말이다. 고기 잡는 천한 어부들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악의 길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애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 자신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이다. 우선, 여전히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여념이 없는 제베데오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현세의 부와 이득에 아직 큰 관심을 둔 부류이다. 다음은 신앙의 길, 즉 주님 앞에서 통한의 심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베드로 형제의 깨달음이다. 즉,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겠다는 생명의 길에 들어선 부류이다. 마지막은 가장 멀리에는 신앙을 배격한 채 생명의 길을 망각한 이방인 부류이다.

그러니 이 호수로 표현된 막막한 우리 인생의 행로, 그 여정에서 나의 마음에 새긴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과연 어디인지를 새겨 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칼날을 더욱 거세게 숫돌질해 보라고 권유하는 화가의 의도가 정말 새롭게 보인다.

권용준 안토니오 고려사이버대 교수

모비딕 - 허먼 멜빌



미국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 있다. 다름 아닌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의 소설 '모비딕'(Moby Dick)이다. 국내에서는 한동안 '백경'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됐던 이 작품은 미국 상징주의 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미국 상징주의 문학의 걸작

'모비딕'은 매우 상징적인 작품이기에 그 해석도 여러 가지다. 하지만 이 작품 아주 깊숙한 기저에는 매우 많은 성서적 상징이 등장한다. 일단 줄거리부터 살펴보자.

이 소설은 삶에 염증을 느끼고 신비스러운 고래를 만나기 위해 포경선에 오르는 이스마엘이라는 청년의 회상으로 구성돼 있다. 항구도시 뉴베드퍼드에 도착한 이스마엘은 여인숙에서 기괴한 문신을 한 남태평양 출신 원주민 작살잡이 퀴퀘크를 만난다. 이스마엘은 문명의 위선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함과 위엄을 지닌 이 남자에게서 진한 인간애를 느끼고 그와 함께 포경선 피쿼드호에 승선한다.

승선하기 전 "바다에 도전하는 자는 영혼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매플 신부의 경고를 비롯해 불길한 징조가 여럿 있었지만 둘은 무시한 채 배에 오른다. 항해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그들은 그 유명한 에이허브 선장을 직접 만나게 된다. 한쪽 다리에 고래뼈로 만든 의족을 한 에이허브는 오로지 자신으로부터 한쪽 다리를 가져간 거대한 흰고래 모비딕을 찾아 복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물이다. 배에는 스타벅이라는 1등 항해사가 있는데 그는 에이허브와 대립되는 이성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그들 앞에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괴물 모비딕이 나타난다. 등에는 무수한 작살이 꽂힌 채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조롱하듯 모비딕은 바다의 제왕답게 쉽게 정복되지 않는다. 소설은 모비딕을 이렇게 묘사한다. *"오, 세상에서 보기 드문 늙은 고래여. 그대의 집은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힘이 곧 정의인 곳에서 사는 힘센 거인이여. 그대는 끝없는 바다의 왕이로다."*

스타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이허브와 모비딕의 싸움은 사흘 낮밤 동안 처절하게 지속된다. 첫째날과 둘째날 보트 여러 대가 파괴되고 선원들이 죽어갔지만 에이허브 집념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정복하지 않는 흰고래여. 나는 너에게 달려간다. 나는 끝까지 너와 맞붙어 싸우겠다. 지옥 한복판에서 너를 찔러 죽이고, 증오를 위해 나의 마지막 입김을 너에게 뱉어주마."

결국 사흘째 되던 날 에이허브는 마지막 남은 보트를 타고 모비딕에게 작살을 명중시키지만 작살 줄이 목에 감겨 고래와 함께 바다 속으로 사라진다. 피쿼드호는 침몰하고 소설의 화자인 이스마엘은 바다를 표류하다가 혼자 살아남는다.

성서에서 차용한 주인공들

소설 '모비딕'의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은 성서에서 가져온 이름들이다. 광기에 사로잡힌 선장 에이허브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광기를 지켜보는 이스마엘은 물론 그들의 최후를 예언하는 예언자 일라이자 등 소설에는 성서적 상징을 지닌 주인공들이 다수 등장한다.

우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이스마엘은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다. 이스마엘은 히브리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 대를 잇기로 한 것이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신은 들으셨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아이를 갖고 싶은 바람을 신이 들어주었음을 의미하는 이름인 것이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적자가 되지 못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직후 사라도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다. 사라가 낳은 아이가 바로 이삭(Isaac)이다. 이삭은 이스마엘을 제치고 아브라함의 정통 후계자가 된다. 졸지에 후계구도에서 밀린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추방된다.

소설 '모비딕'은 "날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다오(Call me Ishmael)."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왜 멜빌은 이 문장으로 소설을 시작했을까. 아마 사회에서 일탈해 포경선에 오르는 주인공의 인생역정을 은유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장치인 듯하다. 자기가 살던 사회에서 일탈해 광야를 헤매는 성서 속 이스마엘과 도시를 버리고 도망치듯 포경선에 오르는 소설 속 이스마엘은 많이 닮았다.

에이허브(Ahab) 선장은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폭군의 이름이다. 구약에는 '아합'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데 '에이허브'는 아합의 영어식 발음이다. 구약에서 아합 왕은 악녀와 결혼해 악행을 일삼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렸던 왕이다. 멜빌은 거대한 고래에 집착하는 선장의 모습을 통해 우상숭배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것 같다.

또한, 소설에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죽을 것을 예언한 남자의 이름은 일라이저(Elijah) 다.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엘리야다. 엘리야는 아합(에이허브)에게 박해받았던 구약성서 최고 예언자다. 소설에 구약시대 최고 예언자를 등장시킴으로써 멜빌은 소설의 결말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 예언자의 말대로 소설은 진행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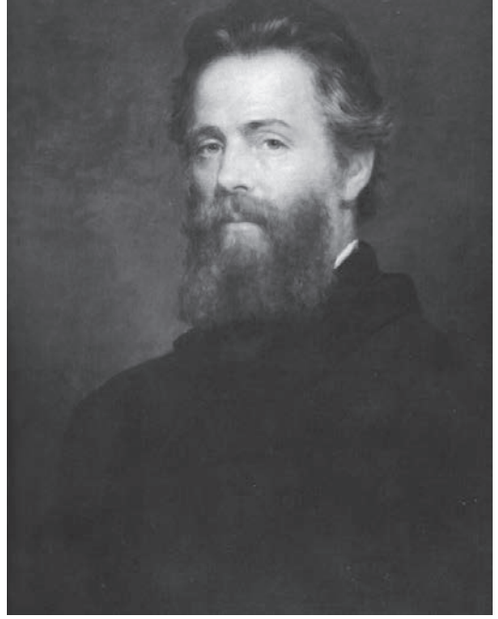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준엄한 경고

등장인물뿐 아니라 소설의 내용에도 성서적 상징은 종종 등장한다. 소설 초반부 이스마엘이 승선하기 전 장면에서 매플 신부의 대사가 나온다.

"더욱이 요나는 하느님께 복종하지 않는 죄를 범한 데다 하느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온갖 조롱의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배로, 신의 힘이 미치지 않고 인간의 지도자만이 다스리는 나라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대사는 구약 12소예언서 중 하나인 '요나서'를 응용한 이야기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렇다.

요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로 가서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라는 하느님의 명을 거역하고 타르시스로 도피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다. 선원



들이 제비뽑기로 신의 노여움을 산 인물을 찾아내 바다에 던지기로 하는데 요나가 그 대상이 된다. 바다에 던져져 고래에게 먹힌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사흘간 살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니네베로 가서 임무를 완수한다.

소설에서 요나 이야기를 거론한 이유는 하느님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느님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불행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소설 주인공들의 어리석음을 선험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소설 '모비딕'은 방랑자 이스마엘과 우상숭배자 아합을 통해 절대자를 대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과 행태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 준다. 끊임없는 도전과 반역, 그리고 심판과 파멸, 그럼에도 다시 반역에 나서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어떤 문학 이론서에 보면 고래 모비딕을 악(惡)의 상징으로 놓고 이 소설이 악에 도전하는 인간의 의지를 그려냈다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고래 모비딕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동을 하고 먹이를 구하고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섭리를 따르는 존재다. 고래 모비딕은 하느님이 정해준 섭리를 상징하는 존재이지 악의 상장은 아니다. 멜빌은 고래라는 상징물을 가지고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준엄한 문학적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영성의 가치 중시한 비운의 작가 허먼 멜빌

살아생전 빛을 보지 못한 작가들은 많다. 하지만 허먼 멜빌만큼 철저하게 어둠 속에 있었던 작가는 드물다. 멜빌의 대표작 '모비딕'은 출간 이후 오랫동안 서점의 소설 매장이 아닌 수산업 코너에 꽂혀 있어야 했다. 서점 직원들이 멜빌이라는 작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1891년 멜빌이 사망했을 당시 부고 기사에 '문단 활동을 했던 한 시민'이라고만 되어 있었을 정도로 멜빌은 처절한 무명이었다. 멜빌이 빛을 본 건 그가 사망한 지 30년쯤 지나 레이먼드 위버라는 저명한 평론가가 '멜빌 연구'라는 평론집을 출간하면서부터였다.

멜빌이 영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보적이다. 소설 한 편 안에 신과 인간의 관계, 상징주의와 자연주의, 진지한 철학적 탐구와 모험소설의 흥미를 모두 쓸어 담은 그의 작품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멜빌만의 가치를 담고 있다.

13세 때 가난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잡역부로 일하다 22세 때 포경선 선원이 된 멜빌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건 '모비딕'이라는 불후의 작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설 '모비딕'은 대립되는 갈등 요소들을 절묘하게 배치해 영성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뛰어난 신앙문학의 보물이다.*

허연 바오로 매일경제신문 문화부장

성경인물 50

폴 보상 지음 / 이용권 옮김
생활성서사 / 신국판 / 368면
14,000원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보는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테르……. 성경의 주인공들이라 불려도 될 만한 이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성경 인물 50'은 그토록 낯익은 이름의 성경 인물을 다루지만 이제껏 접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경 인물들의 면면을 보여 준다. 각 인물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지만 단순히 각 인물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다.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연결시키는 그 인물들을 통해 이루신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약속을 되새기게 한다.

이 책은 성경에 등장하는 50명의 인물상을 통해 다양한 차원에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게 함으로써 성경 독서의 생생한 맛을 보여 준다.

안셀름 그륀의 성경 이야기

안셀름 그륀 지음 / 이종한 옮김
분도출판사 / 140×205 / 248면
10,000원

세상에서 성경보다 널리 읽히는 책은 없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물론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하느님 체험을 인간의 말로 옮겨 기록한 것이다. 하느님은 이러한 인간의 말을 통해 친히 말씀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성경 읽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성경을 읽으려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인 독일의 영적 스승 안셀름 그륀 신부는 창세기부터 요한 묵시록까지, 성경의 각 책을 간략히 소개하며 독자들이 성경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말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준다. 이 책은 성경 말씀에서 그분 사랑을 만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참 믿음직한 이야기

다를레이 자농 지음 / 김동주 옮김
성바오로 / 4*6판 / 188면
11,000원

'참 소중한 이야기' 두 번째 시리즈인 '참 믿음직한 이야기'는 최후의 만찬, 하느님의 현존, 위대한 콘서트, 하늘나라 편의점, 모래 위 발자국, 네 자루의 초, 세 그루의 나무, 기도의 힘, 하느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스물세 꼭지 '믿음'에 관한 예화를 소개한다.
역자인 성바오로수도회 김동주 도마 수사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널리 읽히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믿음을 낳게 마련이기에 틀림없이 믿음이 움트는 영향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망적이며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작으나마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면 관대하고, 사랑이 넘치고, 인내할 줄 알고, 미소와 행동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며 일독을 권한다.

교황 프란치스코, 자비의 교회

교황 프란치스코 지음 / 김정훈 옮김
바오로딸 / 125×176 / 344면
12,000원

266대 교황 프란치스코만큼 단기간에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교황도 없을 것이다. 그는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될 만큼 전 세계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예수회 사제로 오랜 기간 빈민사목에 열정을 바쳤던 이력, 개혁적 인사 단행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 등 바티칸을 개혁하는 행동력, 관저 대신 게스트하우스를, 방탄차 대신 소형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친근하고 소박한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어필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한 후 1년여 간 행한 강론을 엮은 첫 책이다.
교황이 교회와 세계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는 물론, 오는 8월 14일 방한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보여 줄 것이다.

사제의 첫마음

김창환 외 엮음 / 가톨릭출판사
140×205 / 720면 / 22,000원

이 책은 부산교구 사직 대건성당 사목회장을 역임한 김창환 형제가 2010년부터 2년여에 걸쳐 전국 16개 교구의 주교와 사제들에게 청탁해 받은 원고와 가톨릭신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재한 '나의 사목 모토', 평화신문이 올해 연재한 '수품성구와 나'에 실린 글을 모은 것이다.
추기경은 물론 각 교구의 교구장과 주교, 몬시뇰과 신부, 각 선교회와 수도회 사제 등 총 406명의 사제들이 오로지 주님을 따르고자 이 길을 택한 그 뜨거운 마음들을 솔직하고도 담백하게 담아냈다.
사제들의 다짐과 간절함이 깃든 이 책은 단순한 성구 모음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모시고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들이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응원하는 기도서다.

천금말씨

차동엽 지음 / 교보문고
152×220 / 272면 / 15,000원

우리 시대 희망 멘토 차동엽 신부가 감사와 희망을 실천할 수 있는 소통의 힘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로 하여금 당초 목표로 삼은 '지구 행복의 총량을 늘리자'는 데 역부족을 느끼게 한 것은 감사와 희망은 혼자서 이룰 수 없다는 진리였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소통을 말해야 한다고 믿었고 오랜 묵상과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차 신부는 이 책에서 사람은 말을 만들고, 말은 사람을 만드는 순환의 법칙에서 힘 있게 말하기와 힘 있는 말 만들기 사이를 따뜻한 감성과 균형 잡힌 시선으로 해부한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경청의 백미다."
이처럼 전작과 비교해 저자 자신의 자세에서 한층 조심스러워하는 변화를 느껴 보는 것도 평소 차 신부 저서를 애독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즐거움이다.

신동수 편집위원

말씀의 전례 Liturgy of the Word

지난호에서는 시작예식(Introductory Rites)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제(priest)의 입당(entrance)과 인사(greeting) 그리고 참회의 예절(Penitential Rite)에 이어 자비송(Kyrie)과 대영광송(Glory to God)을 바치면 제1독서로 말씀의 전례에 들어간다.

용어

독서: Reading
독서자: Lector or Reader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복음환호송: Alleluia or Gospel Acclamation
복음: Gospel
강론: Homily
신앙고백: Profession of Faith
니케아신경: Nicene Creed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보편지향기도: General Intercession/Prayer of the Faithful

제1독서 First Reading

대영광송을 마치고 사제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제1독서자가 제대에 올라가 독서준비에 들어간다.
Lector: A reading from the Book (or Letter, or Acts) of…
독서내용 낭독
독서의 끝부분에서 독서자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선언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한다.
Lector: The Word of the Lord
All: Thanks be to God!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The choir and/or cantor sing or recite the psalm; the people join in the repeated response.
성가대나 주송자가 시편을 노래 또는 낭독하고 신자들은 후렴을 부르거나 말한다.
제2독서(second reading)를 제1독서와 같은 방법으로 한 다음 복음환호송과 복음 선포가 이어진다.
역시 choir 또는 cantor가 알렐루야를 부르면 신자들이 응답하고 choir나 cantor가 시편을 부른 후 다시 Alleluia로 마친다.
이어서 부제(deacon) 또는 사제(priest)가 복음을 선포한다.
Deacon(or priest) : The Lord be with you.
All: And also with you.
Deacon(or Priest) :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Mark, Luke or John) …
All: Praise to you. Lord Jesus Christ!

강론 Homily

신앙고백 Profession of Faith

주일이나 장엄미사(Solemn mass) 때는 보통 니케아신경(Nicene Creed)이 암송되지만 사도신경(Apostles' Creed)을 바칠 수도 있다. (특히 어린이와 함께 올리는 미사의 경우).
이어서 보편지향기도를 바치면 말씀의 전례 순서가 끝나게 된다.

국내 영어미사 안내

앞으로 영미지역에 갈 계획이 있는 교우들은 국내에서 미리 영어 미사에 참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영어미사 드리는 곳

일시	장소	연락처
주일 오전 9시	명동대성당	02-774-1784
주일 오전 9시, 11시	외국인성당(한남동)	02-793-2070
주일 오전 9시 30분	역삼동성당	02-553-0801
주일 오후 3시	동두천성당 (의정부교구)	031-876-2266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시 30분 다섯째 주일 오후 7시	고등동성당 (수원교구)	031-244-9933
주일 오후 7시 30분	서강대학교 이냐시오성당	02-705-8160

미국에서 입교하는 절차

미국에서 성인들의 입교 절차는 Th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RCIA)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한 입문(initiation)과정으로 보면 된다. 다음은 미국 성 요셉 교구 홈페이지에 나오는 RCIA 관련 내용이다.
(http://www.sjpmv.org/rcia.html)

Period of Evangelization and Precatechumenate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복음의 가치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
(Precatechumenate 입교자 또는 예비자 이전 상태.
※catechumen [kætøkjú:møn] 구도자(求道者), 세례 지원자, 새 신자)

First Step: The Rite of Acceptance into the Order of Catechumens

우리 교회에서의 입교식에 해당하는 전례의식

Period of the Catechumenate

예비자 교육기간
Second Step : Election or Enrollment of Names
보통 사순 첫째 주일에 행해지는 전례 의식. 이 예식을 통해 교회는 성사(세례)를 받으려는 예비자의 의사를 정식으로 승인하며 입교자(뽑힌 사람)는 성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Period Of Purification and Enlightenment
정화와 교화의 시기. 보통 사순절 기간 중, 세례 성사를 받기 직전의 시기를 말하며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성찰을 하게 된다.
Third Step: Celebration Of The Sacraments Of Initiation
마지막 단계로 세례(baptism)와 확인(confirmation), 영성체(eucharist)를 통해 예비신자가 공식적으로 신자가 되는 행사로 보통 부활성야(Easter Vigil) 미사 때 행해진다.

■ 니케아신경 Nicene Creed

We believe in one God, the Father, the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of all that is seen and unseen.
We believe in one Lord, Jesus Christ, the only Son of God,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God from God, Light from Light, true God from true God, begotten, not made, one in Being with the Father.
[bow during the next two lines:]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was born of the Virgin Mary, and became man.
For our sake he was crucified under Pontius Pilate
he suffered, died, and was burie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in fulfillment of the Scriptures;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He will come again in glory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his kingdom will have no end.
We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Lord, the giver of life,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and the Son. With the Father and the Son he is worshipped and glorified. He has spoken through the Prophets. We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We acknowledge one baptism for the forgiveness of sins. We look for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the life of the world to come. Amen.

김태식 토마스 연합뉴스 기획위원

Vatican
바티칸에선…

RT : **유영훈**

3월 2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아침 바티칸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였다. 이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7월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바티칸에서 알현한 바 있다.

3월 12일

“믿음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삶은 새로운 맛을 보게 되고, 당신에게 길을 인도하는 나침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생의 모든 이들을 깨닫게 될 것이며 당신의 지평선이 더 이상 어둡지 않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바위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과 함께하는 많은 친구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울 것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3월 28일

사순 시기는 우리의 세례를 충만하도록 변화시키고, 실현시키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트위터에서

4월 4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4월 15일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통해서만 의심을 확신으로, 악을 선으로, 밤을 빛나는 새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 프란치스코 교황 트위터에서

4월 8일

바티칸으로부터 : 보이지 않는 여성들을 보이게 만드는 보이스 오브 페이스(신앙의 목소리)

2014년 3월 8일 바티칸은 보이스 오브 페이스 공연을 주최했다. 10명의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주목할 만한 여성들이 그들의 확고한 믿음이 어떻게 삶과 더 큰 사회 그리고 세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그들의 비디오를 www.voicesoffaith.org 사이트에서 그들의 프로필을 클릭하면 각자의 경험담을 볼 수 있다.

이 놀라운 여성들 간의 생생한 이야기와 대화들로 엮인 보이스 오브 페이스는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여성의 관점에서 창조적인 교류와 아이디어의 연결을 지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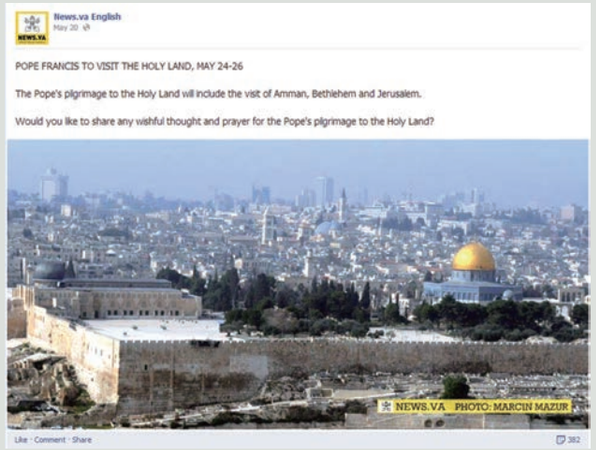
Vatican
바티칸에선…

4월 25일

단순한 생활양식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 – 프란치스코 교황 트위터에서

4월 28일

성 요한 23세 교황과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



5월 20일

5월 24~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지순례

교황의 성지순례는 암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포함한다. 당신은 교황의 성지순례를 위해 어떤 소망과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까?

5월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다.

5월 26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콘스탄티노플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가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콘스탄티노플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가 지난 주일 예루살렘에서 개인회담을 갖고 가톨릭과 정교회 간 신학적 대화 추구, 중동지역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려 표시 등이 포함된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6월 1일

(바티칸 라디오) 지난 주일 부활삼종기도 후 훈화말씀 시간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잔존하고 있는 긴장으로 고통 받는 희생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6월 2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한 성령 운동

복음화운동, 교회영성 일치운동, 가난한 이들을 돌봄, 사회 주변인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모든 것들은 하느님 경배의 쇄신 위에 설립되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사회사도직연구소 평사연 포럼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 이하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소장 오용석)는 지난 3월 25일, 4월 24일, 5월 29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대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1차 포럼은 '평신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평신도 사도직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교 설립에 대해 오용석 소장이 발제했다. 오 소장은 평신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이유로 한국교회의 평신도 교육이 대부분 일회성이거나 단기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세상의 각 분야에서 성화소명을 이루기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이 필수적이며, 교육기관의 형태는 공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신도 교육 전문 대학원대학교를 통해 세상과 교회에서 봉사할 전문가가 양성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2차 포럼은 '천주교화해중재원 설립의 의의'를 주제로 선한승 연구위원이 발제했다. 발제에 앞서 서울지법 이영진 부장판사는 '법원 조정제도의 의의와 성과'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민간의 유능한 조정기구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분쟁이 신속하고 정확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한승 위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서로 양보하는 것이 모두가 승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며, 예수님도 화해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며 설립 의의를 설명하고 "천주교 평신도 간의 분쟁도 연대성과 통합을 기초로 서로 화해하고 통합하는 정신을 구현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공동체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이념이며 신앙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3차 포럼은 '평신도 통일사도직 수행을 위한 평화네트워크 구축–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변진흥 부소장이 발제했다.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유경촌 주교와 20여 명의 평협 임원이 함께한 이날 포럼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사무총장인 변진흥 교수는 70년 동안 갈라져 지내온 우리 겨레가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구상으로 한국평협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 평화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고, 의정부 평협 문호 회장의 지정토론과 다른 참가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시인은 손바닥 위의 씨앗에서 새들의 노래를 듣는다."며 세 번째로 진행되는 평사연포럼의 논의가 자라나 큰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원했다. 유경촌 주교는 격려말씀을 통해 "거창한 통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공감한다."며 "평사연 포럼이 평신도사도직운동의 기폭제 같은 구실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사연포럼은 한국평협 산하 사회사도직연구소에서 진취적인 평협활동과 나아가 바람직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위하여 새로운 주제들을 발제해 논의하는 장으로 6월에는 '성 정하상의 영성과 동아시아의 복음화'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훈 고문 선종, 평협장으로 엄수

서울평협 회장으로 한국평협 제7~8대(1988~1992년) 회장을 역임한 도원(道園) 박정훈 요한 고문이 지난 3월 29일 선종해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로 장례미사를 봉헌했다. 한국평협과 서울평협의 임원들과 유족, 지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협장으로 진행된 장례미사에서 염 추기경은 "공직생활을 마치고 교회와 사회 안에서 크게 공헌한 박정훈 회장을 보며 욥기의 주인공이 떠오른다."며 "가족을 잃은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뜻을 찾아 봉사하셨고, 특히 '내탓이오' 캠페인을 통해 한국사회에 불러일으킨 반향이 크다."는 내용의 강론으로 고인을 회상했다.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은 추도사에서 "박정훈 회장은 엄격한 자기관리로 청렴결백의 모범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한 참그리스도인이었다."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고인의 유해는 용인천주교공원묘원에 안장됐다.

2014년 제1차 상임위원회의 시복시성 운동 계속 펼쳐나가기로

한국평협은 지난 4월 11일부터 1박2일간 안동교구 농은수련원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각 교구 평협의 시복시성 기도운동에 대한 현황을 듣고 시복이 결정된 124위 순교자의 시성뿐 아니라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과 2차 시복 대상자인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그리고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의 시복시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도운동이 요청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지속적인 시복시성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군종평협을 제외한 15개 평협과 상임단체장, 한국평협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 개막미사를 주례한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한국평협의 시복시성기도 운동으로 시복식과 교황 방문이라는 큰 은혜를 입었다. 평신도의 기도와 적극적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을 인용해 "그리스도의 길은 겸손의 여정이며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주교는 이어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신앙인으로서 자아를 잊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위에 선교를 하는 것은 곧 신앙의 행복나눔"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권길중 회장은 3명이 모이면 상황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3의 법칙'과 '기러기의 V자형 비행'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71%의 힘만 들이고도 함께 4만 km를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함께 일치하여 나아가자는 인사말을 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시복시성운동 전개와 함께 한국평협 주관으로 신앙 실천 캠페인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으고, 캠페인 주제와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또한 한국 순교자 시복식과 교황 방한의 역사적 행사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평협 차원에서 지원하고 최대한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평협이 주관하는 '가톨릭 대상'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품격을 높이기 2014년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한국평협이 주관해온 우리성가 공모사업을 주교회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주교회의 총대리회의의 질의에 대해 주교회의가 원한다면 그 뜻에 따르기로 했다. 기타사항으로 격동의 20세기를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신앙의 모범이 된 가톨릭 평신도들의 삶과 신앙을 정리하고 오늘의 평신도들에게 삶의 좌표를 제시하기 위해 '20세기 이 땅의 평신도, 그 빛과 소금의 길' 발간 사업을 평화신문과 공동으로 추진기로 했다.

둘째 날 참석자들은 안동평협의 안내로 상주로 이동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개인이 만든 청리 신앙고백비와 이번에 시복되는 박상근 마티아의 묘소가 있는 마원성지를 순례하고 문경성당에서 파견미사를 봉헌함으로써 일정을 마쳤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4년도 회원단체 지원금 전달식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 담당사제 손희송 · 이하 서울평협)는 지난 5월 8일 서울평협 하상방에서 올해 회원단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이 결정된 16개 단체에 지원증서를 전달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조규만 주교와 서울평협 담당 손희송 신부가 함께한 전달식에서 권길중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신생 단체들의 자립을 돕고, 자립한 단체들이 서로 돕자는 취지로 시작한 회원단체 지원사업이 두 번째 해를 맞았다."고 밝힌 뒤 "세월호 참사에서 느꼈듯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원증서 전달이 끝난 후 조규만 주교는 "지원 금액이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백만 원도 천만 원처럼 쓰는 이가 있고, 천만 원도 백만 원처럼 쓰는 이가 있다."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서울평협은 올해 지원을 신청한 19개 회원단체의 20개 사업 가운데 심사를 거쳐 16개 단체가 벌이는 17개 사업에 총 44,35만여 원을 지원한다. 회원단체 지원사업은 단체 고유의 카리스마를 살리는 사업이나 신생단체 가운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의 사도직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3년에 처음으로 시작해 13개 단체에 5,200만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감사와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기원 성지순례

서울평협은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서울, 경상도, 강원도 일대의 9개 성지를 순례하는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 감사와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기원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교구 사목국 이정준 신부와 평협 임원, 일반 참가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성지순례의 첫 출발지는 명동성당 지하성당이었다. 순례자들은 5명의 성인과 4명의 순교자 유해를 모신 명동 지하성당에서 출발에 앞서 이번 성지순례가 그동안 간절히 기원했던 시복식을 앞두고 자신을 내려놓는 감사와 기쁨의 순례길이 되기를 바라며 평협 담당사제인 손희송 신부의 강복을 받았다.

첫날 일정은 하느님의 종 124위 가운데 19명이 순교한 곳인 대구 관덕정 순교성지에서 성지안내 봉사자를 통해 이윤일 성인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념관을 관람한 후, 복자성당으로 이동하여 미사를 봉헌하였다. 둘째 날 숙소인 은혜의 집에서 수영장대골 성지까지 도보로 순례를 한 참가자들은 이어 울진으로 이동하여 간월산의 가파른 임도를 따라 한 시간 남짓 걸어 죽림굴(대재공소)에 도착했다. 참가자들은 힘든 등반길을 서로 독려하며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올라가 어두운 동굴 안에서 촛불을 켜고 미사를 봉헌했다. 죽림굴은 기해박해를 피해 모여든 신자들이 은신했던 천연 석굴로 미사를 주례한 이정준 신부는 "신앙선조들이 얼마나 힘들게 목숨을 바쳐가며 신앙을 지켜갔는지 깊이 깨닫게 된다. 어떤 강론보다도 묵상이 필요하다."며 감동을 표현했다. 이어 명례성지를 순례한 참가자들은 "시복시성 결정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성지 담당 이제민 신부의 설명을 들으며 특별히 명례성지 시복시성 기도를 함께 바쳤다. 숙소에서 이어진 영성의 밤 프로그램에서는 성지순례 동안의 체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은 배론성지에서의 미사와 최양업 신부 묘소 참배, 매괴 성모순례지 순례 후 서울 서소문 순교성지에서 마침 전례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순례를 함께 한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져 감사하고 행복한 순례였다고 얘기했고 앞으로 시복시성 운동에 앞장서면서 신앙선조들과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제8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수상자 결정 대상에 「주님의 사랑」 전수진 아녜스 자매

서울평협이 주최하는 제8회 우리성가 작곡공모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서울평협이 우리의 정서에 맞는 성가를 개발 육성하고 본당 성가대가 부를 수 있는 전례곡 창작을 진작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우리성가 작곡공모에서 올해 '주님의 사랑'을 작곡한 전수진 씨(서울대교구 수궁동) 등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선정했다.

추계예술대학교 김혜자 교수, 독일 브레멘대학교 박영희 교수, 한국종합예술대학교 허영한 교수, 한양대학교 이경미 교수가 심사를 맡은 이번 공모에는 총 24편이 출품됐다. 심사위원들은 횟수를 거듭하면서 응모 작품들의 선율과 가사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성부도 적절히 사용하고 있어 합창곡으로 부르기에 좋은 곡들이 많았다고 평했다. 서울평협은 시상식을 겸한 발표회를 7월 2일 저녁 7시, 명동대성당에서 미사로 봉헌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 : 「주님의 사랑」 전수진(아녜스, 서울대교구 수궁동 성당)
- 우수상 : 「주님의 사랑」 김드리(프란치스카, 서울대교구 명일동 성당), 「피에타의 성모」 최미설(라파엘라, 서울대교구 목동 성당)
- 장려상 : 「피에타의 성모」 김현정(멜라니아, 서울대교구 후암동), 「사랑의 손길로」 윤은희(로사, 서울대교구 방배4동 성당), 「주님의 사랑」 정규원(스텔라, 서울대교구 세종로 성당)

103위 순교성인 시성 30주년 기념과 교황성하 방한 및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 축하 도보 성지순례

서울평협과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103위 순교성인 시성 30주년 기념과 교황성하 방한 및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 축하 도보 성지순례가 지난 5월 31일 토요일 서울지역 3개 코스로 나눠 실시됐다. 뜨거운 햇살 아래 약 2천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이날 성지순례는 명동성당에서 출발해서 김범우 · 이벽의 집터와 종로성당, 가회동성당, 우포도청터 등을 거치는 4시간짜리 1코스와 가회동성당에서 형조터와 경기감영터를 순례하는 2시간짜리 2코스, 절두산성지에서 새남터, 당고개성지를 순례하는 4시간짜리 3코스로 나누어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서소문 순교성지에 모여 미사를 봉헌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주례한 파견미사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일상의 신앙생활이 순교의 삶이 될 것이다. 현대의 삶 속에서 충실히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은 과거의 순교 못지않게 힘든 일일 것이다."라며 "순교성인의 후손이지만 마땅히 공경 받아야 할 성인과 성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아주 가까운 우리 곁에 순교자들의 흔적이 있음을 생각하고, 특히 서소문 순교성지는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를 거치며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곳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교구 봉사자 피정 참가

천주교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명수 · 담당사제 김명현 · 이하 대전평단협)는 3월 15일(토) 대전 성남동에 위치한 청소년교육원에서 대전교구 사목기획국이 주관한 교구 봉사자 피정에 참석했다.

사목기획국 산하 6개 단체(평단협 여성연합회 선교위원회 소공동체편집위원회 레지아 소공동체연구위원회) 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라는 주제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사목기획국 서 마리아 수녀가 진행한 영상과 묵상을 시작으로 사목기획국장 김명현 신부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라는 주제의 특강과 사목기획국 차장 이영일 신부의 '와서 보아라.' 영상과 함께 주님의 눈길을 보고 느끼고 묵상 시간과 봉사자로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부내포성지 도보순례

하부내포성지(담당사제 윤종관)는 3월 30일(일) 148년 전인 1866년(병인년) 3월 30일에 보령 갈매못에서 치명하신 안 주교님과 두 분 신부님과 장주기 요셉 회장님의 유해를 서짓골에 숨어 살던 교우들께서 모셔와 안장해 드렸던 길인 완장포구에서 서짓골 성지까지 도보성지순

례를 개최했다.

하부내포 도보성지순례는 보령시 웅천읍 완장포구에서 배챙이 못을 거쳐 서짓골 성지까지 가는 9.5킬로미터의 길로 군문효수형으로 장렬하게 하느님께 목숨을 바친 조선교구 제5대 교구장 안돈이 주교와 오 베드로 신부, 민 루카 신부, 그리고 장주기 요셉 회장의 시신을 박해로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냈던 교우들이 모여 있던 서짓골에 안장해 주기 위해 모셨던 길을 걸으며 순교자의 믿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례길이다.

교황님 방한 준비 사목위원 연수

대전평단협은 5월 17일(토)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125개 본당 사목위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당 사목위원 교황님 방한 준비 연수'를 개최했다. 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교황님의 한국 방문은 성령께서 이끄신 일임을 느꼈고 이번 교황님 방문을 계기로 돈과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며 달려온 삶을 반성하고 새롭게 더불어 사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인간 존엄성을 되찾는 은혜로운 시기가 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연수는 교구에서 개최하는 AYD(아시아청년대회), KYD(한국청년대회)에 함께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맞이하고 대전교구 신자들과 교황이 함께하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준비하기 위한 연수로 오전에 청소년사목국장 박진홍 신부의 'AYD, KYD 준비 현황' 발표와 사무처장 김춘오 신부의 '교황님과 대전교구 신자들이 함께하는 대전월드컵경기장 미사 준비' 발표가 있었다. 이어 오후에는 대전교구 교황 방문준비위원회 의전담당 한정현 신부가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과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또 유 주교의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과정과 방문 발표 이후 이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설명과 파견 미사가 이어졌다.

홍성지구 한생명 운동 실시

대전평단협 한생명운동본부는 4월 한 달간 홍성지구(지구장 맹세영 신부) 홍성성당을 비롯한 각 본당에서 한생명운동 '생명과 사랑 나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본당 사목회장 및 교구 단체장 연수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회 · 담당사제 안규태 · 이하 인천평협)는 3월 14일(금)~15일(토) 교구 50주년 기념영성센터에서 본당 사목회장 및 교구 단체장 연수를 실시했다. 총대리 정신철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교회의 수호자는 평신도이며 평신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고 신천지 교회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안규태 신부는 "순교자 영성을 본받아 평신도들은 신앙을 증거하고 선교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교구 남북평화통일 기원 미사 봉헌

5월 3일(토)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최기산 주교의 주례로 남북평화통일 기원 미사가 인천평협 주관으로 교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되었다. 최 주교는 "매월 첫 토요일은 성모님께 봉헌된 날이다. 특별히 남북평화통일, 화해, 일치를 위해 성모님께 보호를 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지오 마리애 신앙 대회

레지오 마리애(단장 김수인 · 담당사제 김태현), 바다의 별 레지아는 5월 6일(화)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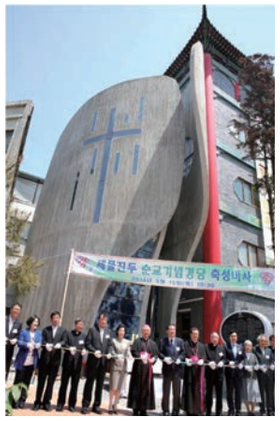
라는 주제로 으로 신앙대회를 주관했다. 대회는 교구 음악 선교부의 찬양, 꾸리아 단기입장과 함께 김수인 레지아 단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다. 레지오 활동 체험 수기와 선교 체험 수기 수상자의 발표, 축하공연이 있었고 총대리 정신철 보좌주교와 인천 레지오 마리애 학교장의 신앙특강이 있었다. 교구장 최기산 주교의 집전으로 교구 사제들과 함께 동정 마리아 신심 미사가 봉헌되었다. 최 주교는 강론에서 "이 나라를 선진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과 복음선포의 사명을 이루는 데 단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축하식에서는 1,500여 명의 25년 레지오 단원 장기 근속자와 선교사에 대한 축복장 수여식이 있었다.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 미사

5월 7일(수)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최기산 주교와 교구 사제단 집전으로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 미사가 인천평협 주관으로 봉헌되었다. 최 주교는 미사 중 강론에서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한다. 이번 사건은 이기주의와 탐욕,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큰 인재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신자들도 사랑의 빛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신자들이 먼저 실천하고 앞장서자. 특히 희생자들이 이루지 못한 꿈들을 우리가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미사 후에는 희생자들을 위한 연도가 교구연령연합회(회장 이기영 · 담당사제 김민중) 인도로 있었다.

제물진두 순교기념경당 축성 미사

5월 15일(목)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1가 1-13의 옛 순교터인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최기산 주교의 주례로 제물진두 순교기념경당(담당사제 제정원) 축성 미사가 봉헌되었다. 최 주교는 "이승훈 묘역과 함께 제물진두 순교기념경당을 찾는 많은 순례객이 순교정신을 본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바란다."고 축하했다. 지난 2013년 7월 11일 착공식 이후 10개월 만에 문을 여는 제물진두 순교기념경당은 109.1㎡(33평)의 대지에 지상 1층 건축면적 43.30㎡(13.10평) 규모이다. 교구에서는 첫 영세자 이승훈 성현 후손 등 10위 순교터를 찾아 이 경당을 세웠으며 이날 축성식을 함으로써 이승훈기념관, 답동 주교좌성당, 제물진두를 잇는 성지순례길이 열렸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미술가회 '제15회 성화성물전' 개최

수원교구 가톨릭 미술가회(회장 양단철 · 담당사제 나경환)는 3월 25일 오후 5시 평화화랑에서 수원교구 미술가회 '제15회 성화성물전' 개막 미사 및 축하식을 열었다.
이날 갤러리 안은 수묵화의 담백한 선에 오롯이 담긴 신앙의 한국적 감성들, 캔버스에서 흘러나오는 영성의 향기가 가득 했다. 깎고 굽고 다듬어진 조각, 도자기, 목판, 스테인드글라스 등 작품의 다양한 형식 속에 녹아든 작가의 노고와 기도가 관람객들을 숙연하게 했다.
2000년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열다섯 번째 '성화성물전'을 개최한 미술가회는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모방적 성물에서 벗어난, 한국 교회만의 독창적이고 예술성 높은 성물들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특히 개인이나 가정의 기도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품들을 발표해 생활 성물의 질을 높여왔다.

레지아 청년단원 도보(열차)성지순례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단장 김상국 · 담당사제 문희종)는 4월 26일 청년 단원 및 성인 간부 450여 명과 함께 전북 익산에 위치한 나바위 성지(담당사제 김경수)로 열차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순례자들은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근조(謹弔) 리본을 달고 열차 순례길에 올랐다.
전북 강경역에 도착한 청년 단원들은 레지아 소속 30개 꼬미시움기를 앞세우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유해와 십자가를 선두로 하여 황산포구, 금강유역, 황산포구 등대를 지나 나바위 성지까지 약 3.5킬로미터를 도보로 이동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에 대한 경배예절을 하고 성지를 둘러보면서 신앙 선조들의 신앙생활과 이곳에서 사목활동의 첫 발을 내디딘 김대건 성인을 묵상하고 함께 미사를 봉헌했으며 제2부 찬양과 애도시간은 수원교구 청소년국 찬양사도단협의회(회장 이주용) 주관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시간에는 지난 16일 있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글 낭독과 추모 노래가 있었다.
김경수 나바위성당 주임신부는 미사 강론을 통해 나바위 성지의 유래를 소개하며, 처음 쁘레시디움에 가입했을 때 마음가짐, 처음으로 본당에서 봉사활동할 때의 그 뿌듯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파티마 성모발현 제97주년 기념미사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회장 전영환 · 담당사제 노성호)은 5월 13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죽산성지에서 '파티마 성모발현 제97주년 기념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미사'를 봉헌했다. 이 미사에는 교구 내 6개 대리구 각 본당의 셀(Cell) 회원들과 일반신자 1400여 명이 참례했다. 세계평화를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하는 것으로 시작해 원로사목자 최재용 신부의 '기도와 나눔'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이어졌다. 오후엔 파티마 성모상 행렬과 대관식에 이어 미사가 봉헌됐다. 미사는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 주례, 전임 교구장 최덕기 주교와 평택대리구장 김화태 신부, 안성지구장 류덕현(대천동본당 주임) 신부, 노성호 신부 등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됐다. 이용훈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세계평화와 아울러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성모님의 전구로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이뤄지도록 간구하자."며 "죄인들의 회개로 하느님 나라가 임하시어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이 주교는 이어 "오는 8월 16일 시복될 하느님의 종 124위 가운데 수원교구 소속 31위 중 박경진 프란치스코 · 오 마르가리타 부부 순교자가 이곳 죽산 출신"이라며 "그분들 순교의 피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씨앗이 됐다."고 전했다.

또 이 주교는 “시기와 반목, 그리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 빚어진 사건이 바로 세월호 참사”라며 “이는 곧 물질을 숭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원로사목자 양병묵 신부 장례예식

교구 원로사목자 양병묵 신부(84)가 5월 20일 노환으로 선종했다는 부음을 받고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래수 · 장의 집행위원장)와 평협 임원들은 장례부터 삼우까지 장의업무 시행을 도왔다. 빈소는 정자동 주교좌성당이었으며, 장례미사는 22일 오전 10시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와 교구사제 공동 집전으로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신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됐다.

사흘에 걸친 장례기간에 정자동 주교좌성당에는 양병묵 신부가 사목했던 본당을 비롯한 교구 내 본당의 많은 신자들이 방문해 고인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기를 기도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신앙의 길’ 7구간 성지 도보순례–신앙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난 4월 5일 의정부교구(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교구 설정 10주년 기념행사 중 하나로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도보로 순례하는 ‘의정부교구 신앙의 길 순례단’ 발대식을 갖고 7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지난 해 의정부교구 신학생들과 ‘순교자공경위원회’(담당 홍승권 신부)의 오랜 준비 끝에 마련된 7주간의 도보 순

례 구간은 총 7개 구간, 신유박해의 길(1구간), 병인박해의 길(2구간), 순교의 길(3구간), 목자의 길 제1길(4구간), 목자의 길 제2길(5구간), 목자의 길 제3길(6구간), 목자의 길 제4길(7구간) 등으로 구성된 ‘의정부교구 신앙의 길’은 개발과 망각의 역사에 가려있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신앙선조들의 하느님 나라를 향한 희망의 여정을 더듬을 수 있는 순례길이 새롭게 열렸다는 신자들의 기대 속에 순례가 시작됐다.

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순례단 발대식 미사 강론을 통해 “순교 신심은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신심 중의 하나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신심이며,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기초”라고 역설하고 “순례를 하는 이들이 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을 사랑할 결심을 하는 길이 되고, 순교자들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보 공지 하루 만에 마감(30명)이 될 정도로 의정부교구 신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출발한 ‘신앙의 길 도보 순례’ 일정은 5월 17일 의정부교구청과 우고리 공소, 광적성당 등을 잇는 7구간을 끝으로 7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한정화 씨(일산 대화동본당)는 “내가 정말 7구간을 완주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신앙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동안 그 숭고한 믿음과 정신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완주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한편 이기헌 주교는 5월 17일 도보순례단과 함께 마지막 구간을 걷고 전 구간을 완주한 순례자들에게 축복장을 수여했다.

ME 의정부협의회 10주년 기념 제4회 의정부 ME가족 모임

ME 의정부협의회(대표부부 윤병수 · 김현순, 담당사제 상지종)는 5월 25일 오전 9시부터 의정부 소재 신한대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1요한 4,18)라는 주제로 제4회 의정부 ME가족 모임을 가졌다.

부부가족과 초청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E 가족들의 다채로운 공연(아코디언, 오카리나, 피아노 연주 등)이 펼쳐졌다. 특히 오카리나(작은 오리 모양 악기)로 듣는 ‘사명’은 하느님을 향한 ME 부부들의 사랑을 더욱 아름답고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인 성가정을 이루고 있는 ME 가족은 점심식사 후에 진행된 2부 행사에서 더욱 일치되고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분열이 아닌 일치와 화합이 승리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에서 가족들은 달리고 뛰고 땀을 흘리며 부부와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다졌다.

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ME 가족의 오늘 체험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직접 체험한 것”이라며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주교는 또 “부모는 생명을 전달하는 일꾼이며 자녀들에게는 인간 교육과 신앙교육을 하는 첫 번째 스승”이라며 ME 부모들의 소중한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파티마성모발현 97주년 기념 미사봉헌–세계평화와 한반도의 평화통일기원

지난 5월 13일 오후 2시부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통

일 기원 미사가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렸다. 파티마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총재 이한택 주교)가 파티마 성모발현 97주년을 맞아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 행사에는 각 교구 대표와 회원 등 4천여 명이 모여 대성황을 이뤘다.

4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묵주기도 20단씩을 봉헌하며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영혼을 위로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간절히 염원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고 지척에 있는 고향 땅을 보고도 가보지 못하는 실향민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백발이 성성한 한 실향민은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마다 미사를 봉헌해 주니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주변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시복 100일 전 순교자 찬양미사–의정부교구 마재성지성당

‘시복 100일 전 순교자 찬양미사’가 지난 5월 8일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마재성지성당(주임사제 최민호)에

서 교구장 이기헌 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마재성지는 1801년 순교한 하느님의 종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고향이자 그의 동생 다산 약용을 비롯한 5형제의 생가 터로 한국 천주교회의 요람 중 한 곳이다.
오는 8월에 있을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식에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와 그의 아들 정철상 가롤로가 시복되고, 정약종의 부인 유조이 체칠리아와 딸 정정혜 엘리사벳은 이미 103위 성인 중에 계시는 성가정성지로 많은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미사에는 200여 명의 외부 인사와 신자들이 참석했다. 이기헌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이곳이 성가정을 꿈꾸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성지가 되었으면 한다."며 "한국 사회에서 모든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곳 최민호 주임신부도 "순교자들의 뜻을 닮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성지를 개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미사 중 포도나무생활성가단의 작은 콘서트도 있었다. 마재성지는 교구장이 선포한 전대사 지정 순례지이기도 하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요한 23세 · 요한 바오로 2세 시성 감사미사

대구대교구는 5월 5일(월) 오후 8시 교구청 내 성모당에서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주례로 '성 요한 23세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시성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세나뚜스가 공동으로 주관한 성모의 밤 행사 중 마련된 이날 미사는 지난 4월 27일 동시 시성된 두 교황을 기억하고 성덕을 본받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특히 이날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4년 5월 5일 대구대교구를 방문해 성모당에서 기도를 바친 지 꼭 30주년 되는 날로 의미를 더 했다.
또한 요한 23세 교황은 1962년 한국교회 교계제도를 설정 · 승인한 교황으로서 한국과 인연을 맺고 있다.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는 이날 강론을 통해 "급변하는 세상에 교회가 변화와 쇄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인 두 교황께서는 20세기 가톨릭교회를 이끌었던 버팀목이셨다."며 "권위주의적인 모습보다는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순교자 124위 관련 순례지 전대사 선포미사

'하느님의 종' 124위 관련 교구 순례지 특별 전대사를 선포 대구대교구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는 5월 17일(토) 오후 7시 30분 대구 복자성당에서 '순교자 124위 관련 순례지 전대사 선포미사'를 거행하고 새로이 탄생할 124위 복자들에 대한 공경심과 신심을 위해 시복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성지 3곳에서 전대사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을 천명했다. 이날 선포된 순례성지는 대구의 '관덕정 순교기념관'과 '복자성당', 경주 '진목정 성지' 등 3곳으로, 올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순례성지를 방문해 고해성사, 미사 봉헌(영성체), 묵주기도 5단, 주모경 1회, '교황 한국 방한과 시복식을 위한 기도'(8월 15일까지만)를 함께 바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관덕정 순교기념관은 교구 20위 시복 대상자 중 17위가 참수하거나 옥사한 경상감영 처형장이며, 복자성당은 울산 장대벌에서 순교한 이

양등, 김종륜, 허인백의 유해가 안장돼 있는 곳이다. 경주 진목정 성지는 복자성당에 안장된 순교자 3위가 순교 후 최초로 묻힌 곳이며, 현재 합장묘가 보존돼 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피정

2014년 5월 10일(토) 오륜대순교자성지에서 부산교구 평협 상임위원 및 고문, 자문위원, 지구별 회장과 함께 '감사 피정 및 제181차 상임위원 회의'가 있었다. 이날 피정은 전수홍 신부(오륜대순교자성지 담당)의 미사와 부산교구 총대리 손삼석 주교의 특강과 성모의 밤 행사, 상임위원 회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시복시성 기원 도보성지순례 마감행사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하창식 · 담당사제 손삼석 주교 · 이하 부산평협)와 부산교회사연구소(소장 한건 신부) 공동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복시성 기원 도보성지순례 마감행사'가 2008년 8월 30일 첫 발걸음을 시작하여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도보순례를 하여 7년(제70차)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014년 5월 24일(토) 오후 1시 광안성당에서 모여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 순례 · 신앙 사적지 순례기도를 바치고 온천천을 지나 오륜대순교자성지까지 약 14킬로미터를 걸었다 이날 참여한 부산교구 신자는 1,300여 명이다. 2014년 8월 16일(토) 부산교구 순교자 이정식 요한, 양재현 마르티노가 시복된다.
이어 오륜대순교자성지 성당에서 교구장 황철수 주교의 주례로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미사 중에 특별상으로 김경수 토마스(송도성당) 가족, 제70회 개근한 박옥순 데레사(망미), 박명순 골롬바(민락), 임복남 데레사 씨(온천)에게 상패와 선물이 수여됐다. 또한 60회(3명), 50회 이상(8명), 40회 이상(11명), 30회 이상(14명), 1년 개근(42명)에게 상장과 선물이 수여됐다. 부산평협 명의로 한건 신부(부산교회사연구소장)에게 감사패가 증정됐다.
부산교구장 황철수 주교는 미사 강론 중에 "'순교자 두 사람이 신앙의 표본이고 모범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신앙을 위해 몸 바치지만 칼도 피하지 않는 순교자는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이 아닌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 사람에 속하지 않는 심오한 정체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날 황 주교는 시복기념 전대사(2014년 5월 24일~2015년 8월 16일) 특은을 선포하였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3.21(금) 2014년 1차 상임위원회 겸 23대 상임위원 임명식

제23대 마산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마산평협) 상

임위원 임명식이 교구장 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덕곤 총회장을 비롯하여 회장단, 기획사무처, 11개 분과위원회, 4개 지구회장, 12개 지역회장, 4개 교구단체협의회장, 9개 대표교구단체장 등 총 53여 명의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들의 임명식이 있었다.
23대 상임위원회에는 시복시성분과, 대외협력분과, 노인사목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에 앞서 이날 저녁 7시 교구청 경당에서는 상임위원 임명 대상자들이 참례한 가운데 미사가 봉헌되었으며, 미사 중 상임위원들의 봉헌예식이 있었다.
봉헌미사에 이어서 신임 상임위원들의 첫 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 중 교구장 주교로부터 상임위원들은 임명장을 받았다.

마산평협 '본당회장 교구단체장 연수'

2014년 마산평협(총회장 김덕곤, 담당사제 강영구)은 '본당회장, 교구단체장 연수'를 지난 4월 26일(토) 마산교구청에서 개최하였다.
총대리 강영구 신부 집전으로 개회미사를 봉헌하고, 교구설정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시대적 소명에 따른 꼭 필요한 사목 주제를 설정하여, 의제 제안발표 · 그룹토의 · 발표 · 저녁식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2014년 좋은 책 읽기 추천도서'를 발표하고 홍보포스터를 각 본당으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발표 의제로는 첫째로 교황님의 방한과 시복식을 계기로 '교구의 시복시성운동과 성지개발'에 대한 평신도의 의견, 둘째로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대외협력 사업'에 대한 평신도의 의견, 셋째로 '진정성 있는 평신도사도직운동의 올바른 방향', 넷째로 '책 읽는 그리스도인' 좋은 책 읽기 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의와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전례 꽃꽂이회 피정

전례꽃꽂이 회원을 위한 피정이 4월 27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피정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라는 주제로 김정훈 신부(성소국장)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김 신부는 강의를 통해 "성경 본문에 '원수를 사랑하라.'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동격이다. 진정 자신을 사랑할 힘이 있다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기도는 하느님의 생명력을 채우는 것이며 하느님의 뜻에 지향을 두고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피정에는 72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새로운 측면에서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이었다.

가톨릭농민회 열린강좌 두부 만들기 체험

가톨릭 농민회(회장 정용우 · 담당사제 박창균)는 4월 28일 류진농원에서 열린 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열린 강좌에는 마산 · 진주 · 거제지구 신자들과 생활공동체 활동가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직접 불린 콩을 맷돌에 넣어 맷돌을 돌려보고 현장에서 직접 만든 두부와 구수한 콩물를 맛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어진 오후 시간에는 몸풀기 수업과 류재하 대표(류진농원)의 체험담과 매실 농가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열린 강좌에 참석한 신자와 활동가들은 "새로운 체험과 재미있는 설명으로 심신의 스트레스도 날려버렸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순교자 윤봉문 요셉 시복 기념 전시회

순교자 윤봉문 요셉 시복 기념전(담당사제 허철수)이 5월 7일부터 13일까지 마산 대우백화점 갤러리 지하 2층에서 개최되었다. 순교자 윤봉문 요셉 시복 기념전은 교구 가톨릭 미술인회원들과 그리고 중국 칭다오한인성당, 로마 한인성당 신자들이 윤봉문 요셉 성지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유리, 도자기, 사진, 이콘, 조각, 수묵, 담채, 유화, 수채화 등 많은 작품을 전시하였다.
전시회를 관람한 신자와 수도자들은 "피정을 마치고 나오는 기분이 들 정도의 감동이었고, 순교자의 일생을 보는 듯 작품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성지 조성 현황을 동영상으로 함께 볼 수 있어서 이해의 큰 도움이 되었으며, 신앙적인 작품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게 감동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이번 순교자 윤봉문 요셉 시복 기념전은 교구사제들과 수도자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세월호 사고, 진도 팽목항 미사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는 지난 4월 16일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도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서 천주교 천막을 설치하고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구 내 본당별로 많은 신자들이 참석해 기도와 미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톨릭 상장례봉사자회 회원들은 팽목항

에서 희생자 시신을 수습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진도 팽목항 : 매일 오후 4시 / 진도 실내체육관 : 매일 저녁 8시 / (미사 1시간 전에 연도와 묵주기도 봉헌)

여성을 위한 하루피정

광주대교구 여성위원회(위원장 홍순덕 · 담당사제 우원주)는 5월 22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각 본당 사목협의회 여성 임원 및 단체장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을 위한 하루피정'을 가졌다. 이번 피정에서는 김계홍 신부(피아골피정집 관장)의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김인국 신부(청주교구 옥천본당 주임)의 '신앙과 사회정의'를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신자들은 피정을 통해 여성의 고유한 역할을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성모대회'

광주대교구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회장 김영대 · 담당사제 조영대)은 4월 28일 파티마 성모발현 97주년을 맞아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주동성당에서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한국 도입 50주년과 교구 인준 30주년

을 기념한 성모대회를 열었다. '은혜에 보답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담당사제인 조영대 신부와 한국본부 담당사제인 김강정 신부의 특강을 통해 성모신심에 대한 이해와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 해설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미사 후 예정되었던 성모순례 행사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취소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마무리했다.

광주서부지구 자연보호 산행

광주서부지구평협(회장 양동현, 담당사제 윤영길)은 5월 17일 지구 내 10개 본당 사목협의회 임원과 본당 신부, 수도자 300여 명이 참여하여 무등산 일대에서 자연보호 행사를 실시하였다. '후손들에게 원래 모습의 자연을 돌려주자'는 의미로 실시된 이번 자연보호 산행은 무등산 원효사에서 장불재까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운전기사사도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광주대교구 운전기사사도회(회장 황철석 · 담당사제 천정철)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5월 21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기념식을 마친 뒤 경품 나눔과 운동경기를 통해 회원들 간 친목을 다졌다. 운전기사사도회는 광주와 목포, 순천에 각각 지부를 두고 있으며, 160여 명의 회원들이 차량을 통한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운전기사사도회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나들이를 돕고, 요양원 등 소외된 이웃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ME 제17회 가족모임

광주ME(대표부부 서동명 · 김애정, 담당사제 최상준)는 5월 24일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에서 ME주말 프로그램을 경험한 부부와 사제, 내빈 등 4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가족모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둘이 하나되니 하느님 보시기 좋았다.'라는 주제로 발표, 사랑의 편지 나눔,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시간을 보냈다. '섬기고 나누는 ME공동체,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가족모임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면서 서로의 아픔들을 격려하고 ME의 선교 사명에 따라 교회를 쇄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부로서의 친밀하고 책임 있는 관계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십자가가 참 많은 어농성지를 다녀와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홍현자 수녀)는 중앙이사 및 자문위원 등 총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4월 12일(토), 은혜로운 사순시기에 성지순례 겸 3차 중앙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 소재 어농성지를 다녀왔다.

어농성지는 올 8월에 시복될 124명의 순교자 중 가장 많은 17명의 순교자가 계시는 곳이다. 을묘박해(1795년), 신유박해(1801년) 때, 윤유일 바오로, 강완숙 골롬바, 주문모 신부 등 17위 순교자가 잠들어 계시는 현양 성지이며 성소의 꿈을 키워 나가는 청소년들의 성지이다.
주변 풍광이 무척 아름다운 어농성지에서 음악을 하시는 김태진 베난시오 신부의 음악 특강과 함께 성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레고리안 성가를 들으며 제3차 중앙이사회를 열었다.

한국가톨릭나사업연합회

제17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식

2014년 3월 11일(화) 오후 7시, 세종호텔 3층 세종홀에서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이 상은 고 지학순 주교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들에게 국제정의평화기금과 함께 수여된다. 올해는 태국의 기층 노동자이며 민주노조설립을 주도하고 현장에서 민주노동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윌래안 새티에(Wilaiwan Saetia)가 수상하였다.
지학순정의평화기금의 이사장이신 김병상 몬시뇰의 인사로 시작된 시상식은 70년대 노동운동동지회 부회장이신 박순희 님의 축사로 이어졌다.
한국가톨릭나사업연합회 직원들도 시상식에 참여하여 기금을 전달하였으며 축하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안동교구 정착마을 교우 한마당잔치

2014년 5월 9일(금), 따뜻한 봄 햇살에 만물이 생기 가득한 기쁨의 부활시기에 안동교구 6개 정착마을과 다미안의 집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정착마을 교우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뜻 깊은 자리에 안동교구 정착마을 교우들이 모두 모인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가 집전한 미사봉헌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음식을 나누고 윷놀이와 명랑운동회 등 놀이를 즐기며 기쁜 시간을 가졌다.

제24회 부산 · 경남 가톨릭 정착마을 한마음 축제

2014년 5월 21일(수), 산청 성심원에서 부산 · 경남 7개 정착마을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앙과 친목을 돈독히 하고, 우의와 사랑을 확인하는 한마음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유의배 신부(성심원 준본당 주임)가 집전한 미사봉헌으로 시작되었으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윷놀이와 장기자랑을 하며 친교와 신앙을 나누었다.

연합회 정기이사회

한국가톨릭나사업연합회 '2014년 정기 이사회'가 2014년 5월 8일 오전 10시 서울 합정동 소재 한국꾸르실료협의회 교육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연합회 담당사제 조욱현 신부와 회장 황복만 수사의 인사로 시작된 이

번 정기 이사회는 2014년 사업 집행 계획 및 2014년 해외지원 방안 등을 의제로 진행되었으며 정관과 운영회원 내규에 따라 운영회원 1명과 이사 3명을 임명하였다. 채규태 종신이사, 김형두 종신이사, 하숙진 특임이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었으며 새로 운영회원으로 임명된 이현주 회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는 정기총회 때 있을 예정이다. 국내 사업은 예산안대로 집행하기로 승인하였으며 해외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한 후 집행하기로 하였다.

한국가톨릭약사회

전국교구협의회 임원회의 및 성지순례, 특강 실시

"한국가톨릭약사회(회장 이강추)는 지난 5월 11일(일) 인천교구 강화도 '갑곶성지'에서 "전국교구협의회 전체임원회의 겸 특강과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인천교구 가톨릭약사회(회장 신상길) 주관으로 30명이 참여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12년 한국가톨릭약사회가 전국사도직단체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인준을 받은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서울대교구 가톨릭약사회, 인천교구 가톨릭약사회, 청주교구 가톨릭약사회, 가톨릭약사회 교수협의회, 가톨릭약사회 공직약사협의회, 가톨릭약사회 병원약사협의회가 참여했다. 인천교구 김수현 신부의 집전으로 미사가 봉헌되었고, 특강이 이어졌다.

각 교구약사회와 협의회 소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가을에 전체 성지순례를 10월 26일(일)에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성지는 임원진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제46차 피정 및 총회 개최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홍영선)가 주최하고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회장 서정욱)가 주관한 제46차 정기총회 및 피정이 4월 5~6일 안양 아론의 집에서 개최됐다.

'가톨릭 의사와 생명윤리'의 주제로 한국가톨릭의사협회 대표담당사제인 김평만 신부를 비롯한 전국 6개 교구에서 68명이 참석했다. 김평만 신부와 정재우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개회미사가 시작되었으며 ▲연명의료 결정(정재우 신부) ▲가톨릭의사의 에토스(이동익 신부) ▲사순절의 삶–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김평만 신부)라는 주제의 강의와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되었으며, 제46차 정기총회에서는 2013년 활동보고 및 재무 · 감사보고가 있었고, 위원회 상설 기구화(생명윤리위원회, 재무위원회, 봉사위원회)가 결정되었고, 2015년 피정 및 정기총회는 3월 21~22일 대전교구 가톨릭의사회가 주관하기로 했다. 또한 회장단 및 임원 임기가 2년 단임에서 연임으로 참석 회원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됐다.

기타 공지사항으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는 세계가톨릭의사협회에 많이 참석해주기를 알렸으며, 염수정 추기경의 파견미사로 마무리됐다. 미사 중에 추기경으로 서임되신 염수정 추기경님을 위해 참석회원 전체가 축하의 노래와 꽃다발을 증정했다.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제31차 정기총회 및 전국 회장단 피정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월 11일(화)~12일(수) 서울 한남동 꼰벤뚜알 피정의 집에서 각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회장단과 봉사자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정기총회와 회장단 피정을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2013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2014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이 있었으며, 피정 중에는 회장단의 영성 강화를 위한 강의와 함께 담당사제 최일광 신부 집전으로 미사가 봉헌되었다. 작년 9월에 설립된 청주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회장단도 참석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 마리애 피정

협의회는 5월 27일(화)~28일(수) 수원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주관으로 성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경기도 의왕)에서 전국 레지오 마리애 피정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성모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라는 주제로 회원 및 봉사자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첫날에는 레지오 마리애 회합에 이어 단원으로서 개인의 성화와 선교방법에 대한 강의, 친교 시간이 있었고, 둘째 날은 고해성사와 함께 수원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담당사제 배용우 신부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했다. 어느 해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빛난 행사였다.

한국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

2014년 제1차 상임위원회

한국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연숙, 담당사제 강영구)는 2014년 3월 17(월)~18(화) 이틀 동안 인천교구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4월 29(화)일부터 5월 1일(목)까지 전주교구 천호성지에서 개최될 제40차 정기총회와 제32차 연수회에 관한 일정을 확정지었으며, 새로운 로고 제작에 관한 경과보고 및 경비지출을 승인하였다.

제40차 정기총회 및 제32차 연수회

제40차 정기총회 및 제32차 연수회가 4월 29(화)일부터 5월 1(목)일까지 전주교구 천호성지에서 11개 교구 87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생명과 말씀'

이라는 주제로,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와 광주가톨릭대학교 김상용 신부의 발제강의가 있었으며, 이틀 동안 강의를 들은 후 조별로 토론을 거쳐 3개 결의문을 도출해 냈다. 초남이성지와 치명자산성지, 전동성당, 한옥마을 등을 둘러보았고, 마지막 날 정기총회에서 세월호 참사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수원교구에 약간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였다.

추기경은 가톨릭 교수들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들에게는 각자의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Asia Youth Day)의 성공을 위해 가톨릭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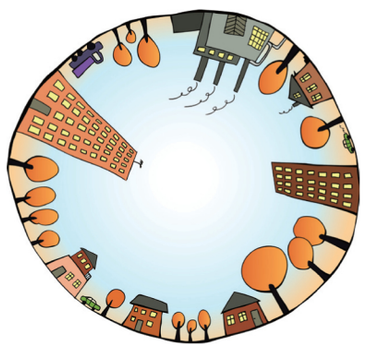
파견미사를 집전하신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강론 중에 가톨릭 교수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더 많은 달란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박홍기 신부(광주 가톨릭대)의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특강에 이어 박홍 담당사제와 최준규 서울가톨릭교수협의회 담당사제 주관으로 가톨릭 교육자들에게 전달되는 성령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다채로운 시간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장혁표 전 부산대학교 총장은 '예수님이 바라는 공동체:사회, 교육과 윤리'라는 주제로, 최홍준 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장은 '변방으로 길 떠나는 교회와 함께'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가톨릭 교수들은 이러한 특강과 묵상 참회예절을 통해 각자의 삶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피정 첫날에 진행된 총회에서는 2013년도 결산, 2014년도 예산안 추인과 더불어 이원희 교수(대구교대)를 새로운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피정세미나 및 총회 개최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회장 이진규, 담당사제 박홍, 이하 한가협)는 지난 4월 5~6일 광주광역시 소재 예수 그리스도 고난 수도회 명상의 집에서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가정과 교육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피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각 대학 대표 가톨릭 교수 및 배우자 120여 명이 참석한 피정 세미나의 첫날, 염수정 추기경은 '복음의 기쁨과 가톨릭 교육자의 역할'이라는 실천적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참석한 교수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특강을 통해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 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 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4년 6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주소
서울평협	신동수	세라피나	sera006@hanmail.net
대전평단협	이병인	미카엘	duck1995@hanmail.net
인천평협	김선우	다미아노	ksw7287@hanmail.net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wonju@pbc.co.kr
대구평단협	양해동	사무엘	yanghaedon@hanmail.net
부산평협	공복자	유스티나	kongbog@hanmail.net
청주평협	정영수	프란치스코	cjjys2000@korea.kr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의정부 평단협	권미영	모니카	teletong@naver.com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손세공	비오	eldison@naver.com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한경숙	마리안나	kshan628@nate.com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강영숙	마리아 막달레나	magdalena57@hanmail.net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두현자	율리안나	doonim53@hanmil.net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pravda89@naver.com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	김혜원	율리아나	yuliana88@hanmail.net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회장	송애련	젬마	ae4789@hanmail.net

공지사항

'평신도' 원고모집 : 한국평협이 개편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